IBK기업은행

연말정산 좀 더 받을 수 없나?
"노후자금"은 언제 다 모으지?
근데 수수료 꼭 내야 되나?

「이 많은 질문에 단 하나의 답
IBK기업은행 IRP!」

연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무료!
세액공제와 수수료 걱정을 한 방에
IBK기업은행 IRP

[i-ONE 뱅크]
IRP 가입하기

수수료 무료
i-ONE Bank 앱에서 가입 시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로 최대 115만 5천원까지 절세 가능

노후자금 마련
개인 맞춤 포트폴리오 설정으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 마련 가능

디폴트 옵션 도입
DC/IRP 가입자의 운용 지시 없을 시 사전 지정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

비대면(i-ONE Bank, 인터넷뱅킹)을 통한 IRP 가입 시 운용 · 자산관리수수료에 한함(단, 펀드 보수 별도 발생가능)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4236호(2022.08.19) [유효기간 : 2023.08.18]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10 | 2022 October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거래고객
㈜청담글로벌 최석주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거래고객
메디컬요양원 김원정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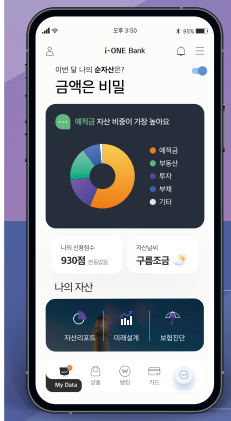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당신이 원하던 자산관리 그 이상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요즘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i-ONE 자산관리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내 차 팔기 서비스
모바일 쿠폰 마켓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커리어관리
정부 지원금 찾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2473호(2022.05.11) 유효기간(2023.05.10)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 기업은행은 금품 ·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contents 2022년 10월호







04 **여성시대 특집**
이별 준비 노트

17 **이달의 편지**
'새벽 책 읽기'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청담글로벌 최석주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메디컬요양원 김원정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스포츠 스타들과의 군 생활'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무대가 돌아왔다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잘 헤어질 결심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무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특집

이별 준비 노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여성시대 가족들의 바람과 부탁을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안녕, 소중한 친구야

신솔이 | 경북 안동시 중평길

안녕? '죽음'아. 너는 나에게 '두려운 친구'였어.

너를 처음 마주한 건 국민학생 때야. 할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염하는 장면을 보았지. 할아버지 몸을 깨끗이 닦고, 코 귀 입 다 뭔가로 틀어막고 뻣뻣해진 사지를 강한 힘으로 움직여 누런 수의를 입히는 모습. 할아버지는 늘 내 곁에 계시면서 함께 연못으로 산책하러 가고, 둘째라 위아래로 치이는 내 얘기를 영원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더 이상 내 앞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늘 할아버지 산소에 들러 "할배요, 나 왔어요" 하고 말을 걸곤 했어. 내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개구쟁이 캐스퍼'에서처럼 할아버지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나를 지켜볼 거라고 믿었던 거지.

20대의 나에게 '죽음' 너는 '존재감 없는 친구'였어. 내가 좀 바빴거든. 대학생활하면서 1년은 미국 교환학생 다녀왔고, 영어 교육을 복

수 전공으로 신청했어. 그러니 전공인 수학 쪽 필수과목과 영어 쪽 필수과목을 모두 들어야 해서 계절학기까지 꽉꽉 채워 듣고 겨우 졸업했거든. 바빴어. 그렇지만 중등 임용고시에는 똑 떨어졌지.

연애도 했어. 모쏠 아니야. 노량진에서 임용고시 준비 딱 1년 해보고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고향 내려왔잖아. 그 영어, 수학 2급 자격증으로 기간제 교사로 일했어. 30대가 되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 31살에 결혼, 32살, 34살에 남매를 출산했지.

나, 첫아이를 출산할 때 죽음 너를 잠깐 스치듯 다시 만났어. 30시간 진통. 그래서 네가 늘 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 거기서 너를 또 보았지.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되셨어. 1년 뒤 시할머니도 돌아가셨어. 또 한 줌의 재. 점점 너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너는 두려워할 존재나 무관심할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너는 늘 내 곁에 있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알아보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기차에서 종점이 어딘지 몰라 초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차 안도 둘러보고 기차 밖 풍경도 즐기다가 기관사님이 "여기는 종점! 종점역입니다~"하고 알려줄 때 단순하게 수줍은 너의 손을 잡고 훌쩍 내릴 거야. 그 하차하는 날을 내가 알 수 없기에 인생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 아침에 눈 반짝 뜨고 일어나면 그것이 기적 아니겠니?

죽음아, 내 소중한 친구야. 내가 너랑 훌쩍 떠났을 때 후회는 크게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주기를 바라고 시간이라는 약으로 치유받기 바래. 나도 그랬거든.

죽음아, 나는 너를 만나기 전에 물건을 많이 쟁여두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고 나면 치울 사람들에게 과한 일을 주고 싶지 않거든. 필요한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나누고 살려고. 남편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둘 다 화장하고 가족 나무 동산 만들어 거기 뿌려지려고 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 참! 중요한 거 빠뜨릴 뻔했다! 제사. 우리는 양가가 모두 종갓집이라 제사를 줄였는데도 7번, 9번이야. 그래서 나와 남편은 의견을 나누었지. 첫째, 제사를 안 지내도 되고 제사를 지내도 그날 꼭 맞추지 말고 편한 주에 남매 둘 다 시간 될 때 제사 지낼 것. 둘째, 상에 이것저것 올리지 말고 남편 제사에는 간짜장과 치킨, 맥주. 내 제사에는 빵이나 떡과 음료. 배달시키거나 사 와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

죽음이라는 친구야, 네가 주변 어딘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있음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고마워. 오늘 하루도 물건은 줄이되 여성시대 애청하며 마음만은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 보낼게. 안녕.

이별 노트

이수정 |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짧다면 짧은 나의 38년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았기에 이별을 준비하며 적으려니 씁쓸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가난해서 빨리 철들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학비가 부족해서 대학교도 중퇴해야 했고, 취직해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일했지만 현실에 부딪혀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며 퉁퉁 부은 다리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며 약을 먹으며 버텼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30대는 두 아이 낳고 어느새 40을 바라보네요. 돌아보니 정말 일만 하고 살았네요. 남들은 또 가고 싶다는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아이들 크면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네요.

세상과 이별할 때는 나를 위한 혼자만을 위한 여행도 해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장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가장 기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그 사진을 품에 안고 떠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엄마의 마지막은 정말 행복했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게 말입니다.

아파도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 보며 살았던 나의 인생. 쌍둥이를 독박육아 하면서도 눈치를 보았으니 후회됩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소리를 내었다면 마음의 병도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그래도 아주 많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엄마만 바라보는 우리 이쁜 둥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자폐를 가진 둘째와 귀 한쪽이 없는 우리 첫째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지 못해서 엄마가 죄인인데 그 아이들보다 먼저 떠난다면 그게 제일 가슴 아픕니다. 제 평생소원이 우리 아이들보다 오래 사는 것. 내가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지켜주고 싶고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더 생기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은 안 당하도록, 절대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엄마는 떠나도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놓고 떠나렵니다.

얼마 전에 저를 키워주신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결혼하지 않으셔서 제가 발인까지 다 책임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때 갑자기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져서 남편과 이야기했죠.

"우리는 애들에게 말해두자. 우리가 세상 떠나면 나무에 뿌려 달라고. 엄마 아빠는 나무 한 그루면 족하다고.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찾아와서 나무에 기대앉으면 된다고 하자. 우리가 묻힐 나뭇값과 비용도 우리가 다 주고 가자."

이별 준비 노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쓰고 싶습니다.

- 여보,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아이들을 선택한 거지.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되어줘. 내가 없더라도 많이 도와줘요. 정말 힘들 거야. 그래도 여보가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돼. 여보야, 고맙고 사랑해.
- 우리 둥이야, 엄마는 조금 빠르게 천사를 만나러 갈게. 우리 둥이는 조금 더 커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엄마 보러 와줄래? 밥도 이제는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옷도 입고 치카도 스스로 잘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 가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보고 싶을 땐 엄마 동영상 조금만 보고 너무 울지 말고 씩씩하게 크자. 나의 전부인 우리 둥이들. 엄마가 못 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 제일이야. 알지? 사랑해.
- 나 자신, 수정아! 일복도 넘치고 인복도 넘쳤던 나의 삶. 아쉬움도 있지만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도 돼.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편하게 눈을 감아도 돼. 그러니 아름답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떠나자. 웃으며 안녕하자.

애청자

31살이라는 나이에 암 선고를 받고 3년 차 암 생존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시대와 함께 '이별 준비 노트'를 적어보았더니 생각보다 슬픈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저는 납골당에 안치되고 싶지 않고 묘지나 산에 묻히고 싶지도 않고 수장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대신 저를 화장시키고 나온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간직해 주었으면 합니다.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관리하는 것도 남은 가족에게 부담일 것 같아요. 작은 보석으로 남아 가족들이 보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김병선

아들아, 장례비는 통장에 남겨두었으니 그거로 하거라. 내 친구들이 찾아오면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바란다. 비싼 수의 입히지 말고 나 자주 입던 정장 입혀다오.

유미경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영정사진이 80대 어르신이 아닌 30대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있더란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결혼 전 제일 예뻤던 때의 모습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김경식

장애인으로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그래서 장기기증 서약으로 보답하고 싶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등록해 두었으니 몸속 장기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후 6시간 이내에 나의 각막을 적출하여 기증하기 바란다. 나는 세상의 힘들고 어두운 면을 보았지만 내 각막을 기증받는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만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가까운 지인에게 부고는 알려주고 조문은 받지 않기 바란다.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시신은 화장하여 선산 나무 그늘 밑에 묻어주기 바란다. 새들이 나무에 찾아와 노래하면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진경섭

엄마 아빠가 작성한 '이별 준비 노트'는 '사전장례의향서'란다. 아빠 책상 위에 있는데 장례식장 없는 장례 절차와 방법, 당부의 말 그리고 시신 처리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산 기부, 시신 기증 의과대학 전화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단다.

그대로 따르면 되고 부모가 죽거든 '부고(訃告)'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알리지 말고 알고 찾아온 조문객이 있다면 차 한 잔 정성스레 대접하고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고, 장례식장 차리지 말고, 직계가족 모여 집에서 1일장으로 부탁한다. 장례식장이 없으니 영정사진, 근조화환, 근조기도 필요 없겠지. 주검이 들어갈 관은 종이관을 사용하고 수의 대신 부모가 평소가 즐겨 입던 밝은 옷을 입혀다오.

2남 1녀, 너희 자녀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 아직 젊으니 부모의 유산은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해주면 좋겠다. 1일장으로 아빠를 추모할 때는 노래 두 곡을 들려주렴. 첫 번째 곡은 내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목포의 눈물'이다. 이 곡을 들으면서 나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구나. 두 번째 곡은 '아침이슬'인데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가사처럼 한평생의 서러움 모두 버리고 그리움만 안고 가볍게 가고 싶어서이다.

김선옥

아들아, 내가 없거든 아빠를 내 몫까지 잘 보살펴다오. 지금의 너희가 있는 건 구두쇠이긴 하지만 책임감 강한 아빠의 희생이 많았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리고 아빠는 가족묘에 간다는데 나는 그곳이 싫다. 너희 외할머니 계신 선산에 뿌려다오. 우리 엄마 살아생전 따뜻하게 모셔보지 못해서 그렇게라도 보듬어 보고 싶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들아, 모바일 부고장에 절대로 계좌번호 남기지 마라. 내가 뿌린 것은 거둔다고 하지만 그건 그네들의 판단인 것, 먼저 손을 내밀지는 말아라.

양희은

혹시 애도하고 싶으면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셔요. 노래에 제 마음이 잘 담겨 있으니까요. 화장해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셔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느티나무 가지 따라 외로운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에 제 주머니에 남은 재물은 저처럼 19살에 세상을 향해 첫발을 딛는 젊은이들 교육에 쓰이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가 겪은 따스한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서경석

친구야, 뭐 하러 여기까지 왔니. 바쁠 텐데. 내 사진 괜찮니? 30대 중반 걸로 해달라 당부했는데 사진 보니까 나와 함께했던 일들이 이것저것 떠오르지? 혹시라도 좋은 기억이 많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봐. 그래도 좋은 게 나쁜 것보다 하나는 더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전에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거든.

와줘서 정말 고맙고 가는 길에 요 앞에 있는 식당에 들러. 맛집이야. 맛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나처럼 오래 살다 갈 수 있단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도 되고 그러는 게 덕 쌓는 길이지. 오늘은 내가 직접 사주지 못해 아쉽네. 그래도 예전에 내가 많이 사줘서 다행이구나 싶다. 친구, 나중에 만나~.

-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맛있게 먹다 간 경석

〈나의 이상형〉

[7119] 제 이상형은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어야 해요. 사막여우 같이 생긴 상 좋아하는데 지금 남편은 다 반대에요. 우리 남편, 잘생겼다는 얘기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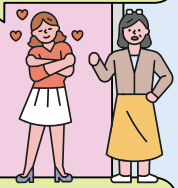
[5908] 전 이상형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술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 꼭 사귀면 술을 마셔보곤 했는데 지금 남편이 술을 마셔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젠틀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이상형이 바뀌었어요. 술 안 마시는 남자로요! 으이그, 그놈의 술! 술! 지긋지긋하다.



[정연수] 딱히 이상형은 없었는데 살아보니 알겠어요. 딱 우리 남편이랑 반대인 사람이 제 이상형이라는 것을요.



[이윤진] 제 이상형은 키는 김수현, 눈은 현빈, 성격은 유재석 같은 남자예요. 엄마가 못으로 조각해서 만들어 내래요 차라리.



[이선희] 제가 악필이라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이상형이었어요. 그래서 만난 우리 남편! 그 멋진 글씨체로 잘못할 때마다 각서를 써 줘서 아직까지 권태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최태영] 제 이상형은 신사임당입니다. 지갑 안에 신사임당을 꽉 채운 분요.

[강미라] 제 이상형은 나쁜 남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들을 봐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형은 나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나쁜 놈'이라고 등골 브레이커들뿐이고요. 제가 남자 보는 안목이 없나 봐요.



[김혜란] 저는 엉덩이가 이쁜 남자가 이상형이었어요. 청바지 입었을 때 이쁜 거 아시죠? 근데 울 남편 정말 바지 핏이 좋았는데, 지금은 말해 뭐합니까.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 영원할 수는 없네요.

화요일 '사랑탐구생활' 시간에 도착한 문자입니다.

이달의 편지

18 새벽 책 읽기
21 1년의 알바
23 난 꼰대 엄마일까?
26 다둥맘의 출산 장려
29 남편의 세 번째 눈물
32 눈물의 웨딩드레스
35 뜻하지 않은 감동을 준 구매자
38 치매 어머니 돌봄
42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
45 용돈
48 집안이 쓰레기통
50 우산 폭, 가슴 폭
53 청소 아주머니가 준 감동
55 93살 순애보
59 추억 남겨 주신 아버지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새벽 책 읽기

이보영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저는 맞벌이 맘입니다. 첫째는 생후 8개월, 둘째는 9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평택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이상 다니며 억척스럽게 일했어요.

애들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7시 20분에 어린이집에 맡겨져 저녁 7시나 되어야 하원하기를 2년. 그래도 어린이집 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셔서 안심하고 다니고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애들이 3~4살 무렵 동탄에 있는 직장을 잡게 되었고, 지금 애들이 6살, 8살인데 꾸준히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애들이랑 놀아주고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6시에 퇴근해서는 맥주 한잔하는 게 낙이었죠.

저희 큰애는 남자아이로 그냥 활달한 아이고, 둘째는 여자아이로 '공주공주'하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큰애가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수업에 집중을 못 한다고 담임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직 1학년이고 어리고 워낙 개구쟁이라 적응하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타일러도 보고 스티커 붙여서 선물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랬건만 3월 4월 5월… 계속 앉지 않는 우리 아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인성 검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관심군'으로 나왔고, 보건소에 또 한 차례 검사하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벌이라 보건소와 병원에 가는 일이 쉽지 않았고 코로나19에도 걸려서 회사에 폐 끼치는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ADHD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요.

담임선생님 연락이 오자 울컥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전화해 빈 시간에 언제든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당일에 빈 시간이 있어서 회사 잘릴 각오로 정말 후다닥 준비하고 나왔어요.

가는 동안 '내가 계속 일만 하고 아이 어릴 때 사랑을 덜 주었나, 맞벌이여서 엄마 사랑이 부족했나, 내가 소홀했나…' 별생각이 다 들고 눈물이 또르르 흐르고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았어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는 처음이었는데 가서 상담만 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고 며칠이 흐르고 종합검사를 잡고 또 몇 주 후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어요.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병원은 왜 또 이렇게 검사를 찔끔찔끔하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엑스레이 찍는 것도 아니고 마음병이다 보니 아이들 컨디션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결과는 ADHD.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그 무렵 학교에서 주말에 '부모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벌이라 그전에는 '그런 교육 그냥 하나 부다, 교육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 가보자!' 결심하고 갔어요.

교육 내용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고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나 바쁘다고 아이에게 빨리 빨리를 외쳤구나' 반성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으로 교육받고 나서 '다독다독'이라는 학부모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독다독에서 이 부모 교육을 주최했더라고요.

저녁에 맥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책을 읽으며 여유를 갖고 싶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무턱대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정말 책 얘기가 80%를 차지하는 모임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한 달에 책 10권을 추천하고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만큼 읽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육하기를 "새벽에 책을 읽자! 나를 가꾸자! 내가 먼저 선행하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자!"고 했습니다.

그 교육이 있기 전부터도 다독다독 회원님들은 새벽에 책을 읽으셨고 저는 7월에 가입하여 책을 사고 애들 방학에 회사 근무에 한두 장씩 조금씩 읽다가 제대로 새벽 독서한 지는 이틀 되었어요. 새벽에 읽으니 1시간에 정말 집중이 팍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책만 읽으면 자는데 아이를 위한 마음 때문일까요, 아이에 대한 책이어서 그랬을까요. 완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읽었어요.

책을 읽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벽 독서를 정말 꾸준히 하고 싶어요. 여성시대 가족들, 응원해주세요!

Letter 02

1년의 알바

애청자

저는 서울에 사는 24살 여성입니다. 제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학 졸업하면 바로 꿈을 좇아 돈을 벌거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준 생활을 하면서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해 빚을 지게 되었고 급한 불부터 빨리 꺼야 했기에 구직 사이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식당 하나를 골라 바로 그날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일이 끝난 후 집에 가는 버스를 타자마자 몰려오는 다리의 통증과 두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 앞에서 우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 그 버스 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몇 번을 더 나가야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고된 식당 일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 주변 친구들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여가 생활을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이요. 즐겨야 할 나이에 잘못한 거 없이 돈만 벌어야 하는 제 인생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전에 하고 싶었던 편입시험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알바와 병행하며 공부해야 했지만 독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들보다 더 독하지 않았는지 6개월 준비한 시험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좌절하고도 남았을 이 상황에 저는 행복한 웃음이 나더라고요. 빚에 억눌렸어도 제 꿈을 한 번 좇아가 보았다는 과정 자체가 순간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 처음으로 인생의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일하면 제 1년의 알바와 빚은 끝이 납니다. 빚만 보고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그만두려니 정들었던 사장님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그 장소가 정말 그리워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젠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해방감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캄캄했던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Letter 03

난 꼰대 엄마일까?

전미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1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은행 대출도 받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 보태서 예비 며느리와 반반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고 했다. 사실 말이 내 집이지 절반 이상은 은행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단 기특하고 대견했다. 아들 역시 잔금을 치루고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한껏 달뜬 기분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2주간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생활하고 있던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기 되는 예비 며느리 먼저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결혼식 후에 아들과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보수적인 남편과 나는 아들에게 결혼이 코앞이긴 해도 혼전 동거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고 아들 또한 말했다.

"엄마! 30년 이상 키운 아들인데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저도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둘 다 신비주의라 신혼의 로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자제품이며 가구가 들어온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들 얼굴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싶더니 얼마 전 주말 급기야는 아들이 옷가지를 터질 듯이 밀어 넣은 대형 캐리어를 끌고 태연하게 현관문을 나서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안이 벙벙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옷 가방을 끌고 나가는 아들에게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따지고 싶었지만 집안에 취준생 작은애가 있어서 민망한 발언이 오갈까 봐 입도 벙긋 못하고 아들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분노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 지금 결혼이라도 했어? 네 동생이 옆에 있어서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아이 입주하는 날 덩달아 옷 가방 끌고 나가는 널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 동생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그러자 바로 아들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벨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내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때 기분으로는 아들과 그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연이어 서너 번 벨이 울리고 끊기기를 반복하기에 아예 무음으로 바꿔서 이불장에 넣어 버렸더니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했는지 아들이 엄마 바꿔 달란다며 스피커폰으로 돌린 휴대폰을 내 앞에 휙 던져놓고 나가버렸다. 듣기를 거부할 틈도 없이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목소리.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이유를 알아야…."

나는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리고 약 40여 분이 흐른 후 급히 삑삑삑삑 현관문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안방에서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아들이 뛰어 들어와서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들.

"엄마, 여자친구가 한 달 동안 교육 들어가는데 큰 캐리어가 없다고 해서 빌려주려고 보니까 옷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시간이 급해서 빼놓기도 애매하고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다 가져가야 할 겨울옷들이기에 그냥 가방 통째로 들고 나간 건데 대체 무슨 오해를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엄마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죄송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니 끝내 오열하듯 꺼이꺼이 울어버렸다.

순간, 얼마 전 예비 며느리가 한 달간 교육 들어간다고 했던 게 기억났다. 앞뒤 퍼즐이 맞춰지면서 나의 선 넘은 오해를 인지하게 됐지만 멋쩍어서 바로 미안하다는 꼬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들이 성급하게 집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 섭섭했다는 둥 애꿎은 지난 일까지 들춰내 가며 일련의 상황들을 비겁하게도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대출금액도 엄마 속였더라? 대출이자도 점점 올라가는데 그렇게 대출이 많으면 집을 산 게 아니라 월세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냐? 이자 갚느라 등골이 휘는 그게 하우스 푸어야! 하우스 푸어!"

"엄마, 원래 근저당 설정은 대출금액보다 높게 잡아 놓는 건데 그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정금리라 그나마 좀 나아요. 둘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 32년 동안 돈이 있어야 집을 산다는 아집과 편견으로 단 한번도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않은 나로서는 근저당 설정을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책정하는지도 몰랐다.

그날 아들과의 투쟁은 완패! 난 어쩔 수 없는 꼰대 엄마일까?

Letter 04

다둥맘의 출산 장려

고지연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막내가 열이 거의 40도, 갑작스러운 고열이라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아이 셋을 키운 덕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해본다. 두 돌이 다가오니 3세 미만에 발생한다는 '돌 발진'이 온 건가 싶기도 하다. 열이 심하게 나니 온 이불에 구토를 하는 막내. 해열제를 먹어야 하는 데 속이 안 좋으니 이마저도 거부한다.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아프지 마. 어서 낫자. 나의 셋째, 나의 보물…" 중얼중얼거리며 밤새울 각오를 했다.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셋째는 참 특별하다. 복덩이가 태어난 기분이랄까?

2014년에 50일 된 첫째를 데리고 호기롭게 귀농했다. 하지만 "잘 될 거야, 잘해보자, 파이팅!"을 외쳐도 늘어나는 건 은행 빚뿐이었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 때 둘째를 임신하고 출산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조금 예민했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셋째는 절대 없다! 셋째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마라"고 남편에게 엄포를 놓곤 했다. 외아들인 남편은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래왔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셋째 계획하냐"고 묻기라도 하면 정색하며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며 상대를 당황하게 했던 내가 지금은 "셋째를 낳으라"고 권하는 전도사가 되었다

둘째와 네 살 터울인 셋째는 애교가 많다. 잠들기 전에 엄마 팔을 토닥이며 자장자장 노래를 해주는가 하면 수시로 "엄마, 최고야! 엄마, 고맙습니다~"를 말한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픈 것 같으면 짧은 다리로 종종종 달려와 "괜찮아? 괜찮아?" 묻고 괜찮다는 답을 들으면 "다행이다. 호 해줄게~" 하며 호호 입김을 불어주곤 한다.

셋째 덕에 자연스럽게 다들 웃음이 많아졌고 특히 내가 많이 웃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니 가정이 평안하고 농장 운영도 더 잘해내고 있다. 이래서 다들 '셋째는 사랑이다. 셋째는 복덩이다'라고 하는 듯하다. 하나에서 둘이 키우기 힘들지 셋째는 모든 게 수월하게 지난다.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다 보니 벌써 두 돌이 다 되어간다.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경제적 여건도 작년부터 풀리기 시작했고, 올해 처음으로 '농사지어 돈을 모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라는 걸 갖게 됐다.

일주일에 한 번 사치 부려 사 먹던 '치킨 한 마리의 보릿고개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삼 남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격 고민은 할 지언정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

삼 남매 모두 너무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셋째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

"아가야, 괜찮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선잠을 자는 너를 보면서



엄마는 대신 아파 주지 못하는 것에 미안하고, 그저 네가 잘 이겨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씩씩하게 견뎌주렴. 그러고 나서 '나는 괜찮아요~' 하며 일어나주기를 기도할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생일 축하해, 내 사랑♡"

Letter 05

남편의 세 번째 눈물

권미숙 |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저는 여성시대를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서경석 님께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시대로 편지하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봅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든 남편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더니 조금 후 남편은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보인 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만히 안아주면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23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지만 아파트 뒤쪽에 테니스장이 2면이나 있습니다. 남편은 테니스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테니스와 결부해서 생각하는 테니스 아니면 할 말이 없는 정말 테니스를 좋아하는 테니스인입니다.

지금 저희 사는 곳도 단지 뒤쪽에 테니스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에 산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지요. 절대 이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싶지만 남편을 보면서 포기할 정도로 지금의 아파트와 테니스장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 대표들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운동 시설을 만들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유는 테니스 칠 때 나는 소음과 외부인까지 들어와서 운동을 한다는 민원 때문이었고 동 대표들이 일사천리로 의결하고 공고한 것입니다. 남편의 절망은 너무 컸습니다. 20년 넘게 테니스 동호인들의 추억의 장소였던 곳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테니스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남편은 그동안 민원이 있을 때마다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최대한 소음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동호인들에게도 외부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도 동 대표들을 설득하기 위해 남편은 임원단들에 호소문을 쓰고 직접 찾아가 사정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전에 이곳에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테니스장을 찾아와 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고 소음도 최선을 다해 줄이겠다고요. 하지만 동 대표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그 힘은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동 대표 중 한 분은 남편에게 이런 말도 했다더군요. '나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 줄도 몰랐다. 25명 소수의 동호회 인원이 그렇게 넓은 공간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 살이 떨린다. 심지어 거기 멤버 중에 교사가 있다는 거에 더 화가 난다.'

남편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교사'가 나오냐고 정말 따지고 싶었답니다. 저 역시 그 동 대표분에게 묻고 싶더군요. 테니스장은 동호회 회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파트 건립 때부터 쭉 있어서 사용했던 거고 주민으로서 공짜로 쓴 것도 아니고 다 사용료를 내면서 쓴 건데 대체 뭐가 그렇게 살이 떨리냐고요? 거기서 교사가 대체 무슨 잘못이냐고요. 남편에게도 왜 가만히 있었냐 참지 말고 따지지 그랬냐 했더니 동 대표들의 결정에 혹시 방해가 될까 봐 화가 나도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폐쇄입니다. 그곳을 맨발 걷기 장소로 만든다고 하네요.

5년 전, 뇌졸중으로 30년 교직 생활을 접어야 했던 남편은 퇴원하면서도 '다시는 걷지 못해서 테니스를 못 치게 되면 어쩌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테니스장에 가서 라켓을 잡고 혼자 연습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그런 남편에게 아직 게임이 어렵지만 함께 운동하자고 손을 내밀어줬고 하루하루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어서면서 남편은 점차 건강도 좋아지고 테니스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아픈 남편이 매일 찾아갈 수 있었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남편에게는 더 애착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째 아무도 없는 테니스장에 가서 혼자 물끄러미 테니스장을 바라보다 옵니다. 임원단들은 동호회를 끝내 해체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힘없이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우리도 이곳의 주민이자 이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공동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동 대표들이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볼 수는 없었는지, 그렇게 모진 말로 꼭 상처를 줘야만 했는지 모든 게 다 씁쓸합니다. 속상한 마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ter 06

눈물의 웨딩드레스

이해정 | 전남 광양시 사동로

6년 전 곱게 키운 딸이 홀로 캐나다 유학길을 나설 때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곳에서 학업 마치고 취업하면 부모 품으로 돌아오기가 어렵겠다고 절반의 포기를 하면서 그저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지요.

4년 만에 한 달 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계획했으나 코로나 19 장벽 때문에 무산되고, 이산가족이 돼버려 딸 가진 엄마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서른이 넘었는데 남들 다 하는 연애도 못한다"고 은근히 자극을 주며 "든든한 보호자라도 생기면 마음이 좀 놓이겠다"고 부담을 안겨줬더니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그날부터 모녀간의 통화에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엄마 딸, 남자친구를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보니

눈 돌릴 시간이 없어서 안 사귀었는데 지인이 소개해주어 서로 알아가고 있으니 너무 염려마세요."

그 전화에 안도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더군요. 반년이 지나 예비 사위의 인사를 화상으로 받았고 주인공들 없이 양가 부모끼리 상견례를 했습니다.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다기에 우리 가족은 14시간 비행을 멀다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네 식구 공항에서 눈물로 상봉했지요.

결혼식 전날, 웨딩드레스 주름진 곳을 다려달라고 숙제를 주더군요. '내 딸이 입을 드레스, 최고로 예쁘게 입혀야지' 하며 두 시간에 걸쳐 정리하고 나니 밤 12시. 걸어놓고 자려고 누워서 보니 약간 불편한 곳이 보여서 '스팀 한 방이면 되겠다' 싶어 다리미 온도를 살짝 더 높여 스팀을 분사하는 순간 야리야리한 망사가 다리미와 닿아버렸나 봐요. 아기 손바닥만 한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어요. 앞이 캄캄하고 눈물만 줄줄 나고 '아,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까' 황급히 남편에게 지원 요청을 했으나 방법이 없고 평소에 챙겨가지고 다니던 반짇고리를 결혼식 준비물 챙기느라 미처 못 챙겼다고 자책할 뿐이었습니다. 그 밤에 바늘, 실 살 곳도 없으니 꿰맬 수도 없고 정신을 가다듬고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옷에 문제가 생겼으니 내일 아침에 바늘과 실 좀 갖다 줘."

이 상황을 알면 엄마의 큰 실수에 딸이 얼마나 상심할까 싶어서 한숨도 잘 수 없었고 수도꼭지 틀어놓은 듯 눈물만 줄줄 흘리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고 달랑달랑 들고 온 반짇고리를 건네는 딸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죠. 후다닥 몰래 응급조치를 하려는

데 밤새 울어서 부은 눈에 바늘구멍은 왜 그리도 작은지 실이 꿰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땀 반, 눈물 반 어찌어찌 꿰매고 막아서 응급조치해 놓고 드레스 담당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딸의 시선이 드레스에서 멀게 해주고 꿰맨 곳이 보여도 놀라지 말아달라고요. 신부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자는데도 저는 드레스 구멍 났던 부분만 보였습니다.

수심어린 표정으로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식 후 한복을 갈아입고 나타난 딸을 보니 또 한 번 뜨거운 감정이 일고 그놈의 눈물샘이 터져 피로연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행사가 모두 마무리되고 다음날 딸이 물어요.

"엄마, 결혼식 전날 못 잤어요? 아팠어요? 얼굴이 안 좋았어요."

아니라고 아무 일 없었다고 해도 평소의 엄마 얼굴이 아니었다고 자꾸 집요하게 물어서 먼저 다짐을 받았습니다.

"딸아, 엄마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 죽을죄를 졌다 해도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말할게."

딸이 그러겠다고 해서 자초지종 양심고백을 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쿨한 딸의 반응.

"엄마,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로 엄마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게 오히려 가슴 아파요. 한 번 입으면 끝나는 드레스니 이제 다 내려놓고 여기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딸의 위로와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고 '인생 60을 살아온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짧은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이국 멀리 떨어져 있어도 든든한 보호자가 생겨서 마음 놓이고,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Letter 07

뜻하지 않은 감동을 준 구매자

송충록 | 서울 서초구

30대 남자입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10년 정도 된 에어컨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어요. 연식이 오래돼선지 아무 소식도 없던 찰나에 한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말투와 단호한 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무조건 사겠다며 급하게 연락해 온 것도 이상했고요.

그래도 일단 약속을 잡고 기다렸어요. 수상한 구매자와 거래를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본인이 에어컨 관련해서는 잘 아신다고 하기에 어쩌다 집에 있는 또 다른 '벽걸이 에어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집 벽걸이 에어컨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실외기에 '앵글'이라고 열을 식혀주는 지지대도 없었고, 에어컨 물이 잘 빠지지도 않

아서 페트병을 연결해 한 시간에 한 번씩 물을 버려줘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었죠. 저는 다른 집도 물이 안 내려가면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매자와 거래하기로 한 날 인상이 아주 좋은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르신은 제가 내놓은 물건을 보기도 전에 "그 문제 되는 에어컨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면서 본인이 이것부터 해결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는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의 문제점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가장 중요한 에어컨 호스 끝부분이 막혀 있었고 하수도로 고정도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이러니 에어컨을 틀면 물이 샜던 거죠.

어르신께서는 그냥 제가 내놓은 에어컨만 가져가도 되는데 비 오는 날 몰고 온 트럭에서 설비 부품을 잔뜩 가져오더니 에어컨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막혔던 구멍을 뚫고 배관 이어지는 통로도 뚫고 그렇게 2시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쯤 되면 그냥 가실 법도 한데 이건 반드시 고칠 거라며 옷걸이부터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싱크대 밑까지 다 뜯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더러운 호스를 직접 입으로 불기까지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더니 결국 다 해결해주셨습니다.

몇 년간 에어컨이 있으나 마나 실내온도 30도로 살았던 저에게 뜻하지 않게 엄청난 감동이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2시간이 한참 지나 작업이 끝나고 어르신은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지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땀을 엄청나게 흘리는 어르신께 부랴부랴 커피를 사 와 대접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올렸던 에어컨 판매 대금을 주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셨어요. 저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냥 나눔으로 드린다고 했지요.

세상에! 구매자가 와서 젊은 수리기사들도 못 했던 일을 해결해주고 앵글까지 설치해주셨는데 돈까지 받으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 하는 입장 같은데 어르신은 자꾸 괜찮다며 제값대로 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쳐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어느 구매자가 남의 집 에어컨을 점검하고 몇 시간 동안 수리해주고 가겠냐고 어르신을 말렸어요. 어르신께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나오는 몇몇 업체들이 후기들로 속여 가며 출장비에 수리비까지 수십만 원씩 받아 가도 못 고치는 상황에서 이런 분이야말로 숨겨진 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개인 업체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동네에서 지인분들 문제 생기면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울컥했습니다. 너무 실력이 좋아서 아깝다고 저도 지인들 문제 생기면 연락드린다고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졌네요.

바쁘고 냉정한 사회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도 많다는 걸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하루였어요. 판매하기 전 잠깐이라도 이상한 분이 아닐까 의심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르신이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봅니다. 어르신, 덕분에 감동적인 하루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Letter 08

치매 어머니 돌봄

이동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퇴근이 30분 정도 남았던 시각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구토를 하시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급한 전화에 긴장으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1년 전부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소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가 저녁이면 어머니를 댁에 모셔옵니다. 그러면 제가 퇴근하여 어머니를 밤 동안 돌보다가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주간 보호소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립니다.

처음 어머니의 치매 증상과 진단을 들었을 때의 심정은 말로만 듣던 눈앞이 캄캄하다는 표현, 딱 그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내아들의 얼굴을 보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에 충격으로 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저를 알아보시고 정상적

인 대화를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간간이 저를 기억 못하고 밖으로 산책 중에 집이 어딘지 찾지 못하곤 합니다. 누나와 두 형님과 모여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나 고민하고 몇 가지 방법을 이리저리 시도하다가 결국 이게 최선이다 싶어 결정한 생활입니다.

주간 보호소 직원이 어머니를 댁에까지 모셔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구토를 하신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근무지와 어머니 댁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가도 시간이 한참 걸릴 듯하고 어쩌나 고민하다가 친한 선배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선배님은 어머니 댁과 가까운 곳에 직장과 집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말씀드리며 스트레스와 고민을 털어놨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 댁 비상키 있으면 하나 주라.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가까우니까 연락해."

선배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드디어 연락할 일이 생겼다 싶었습니다.

"선배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어머니 댁에 가실 수 있어요?"

선배님은 바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잠시 후 선배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현아! 지금 어머니 뵙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신다. 나랑 대화도 하고 안색도 괜찮으셔."

어머니 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받은 선배님의 전화 한 통에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선배님,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방문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곧 방문할 겁니다. 저도 30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급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 댁, 방문 간호사가 계셨고

선배님도 보였습니다. 간호사님의 응급처치 덕분에 어머니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셨네요. 그래서 구토 증상이 있었고요. 아마 어디서 넘어지거나 부딪친 거 같은데 설명을 못 하시네요."

간호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따뜻한 물수건을 발목에 올리고 혈압을 다시 측정하니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긴 한숨을 쉬니 옆에 선배님이 말없이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방문 간호사님이 돌아가시고 잠시 어머니 상태를 더 확인한 후 근처 식당으로 가서 오랜만에 선배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이 그러시네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봤을 텐데…."

물론 그것도 이미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종일 정신이 없는 상태이고 심각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요양원으로 보낼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멀쩡하다가 간간이 저러시니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렵니다.

치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정작 제 삶에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부모님을 둔 자녀들의 고민이 이웃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제 어머니의 이야기가 되니 그간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같은 연세의 어머니를 둔 선배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 잘해 드리세요! 저는 아무리 잘해 드려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어머니와 여행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진즉에 기회가 있을 때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미뤘던 게 이렇게 되었네요."

누나도 있고 형님도 두 분이나 있는데 왜 막내아들인 제가 어머니



를 모시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아이 셋을 키우는 누나에게 어머니를 맡길 순 없었습니다. 큰형님은 외국에 계시고 작은형님은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그나마 막내인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킹맘 아내에게 치매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댁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정을 뒤로 미루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선배님에게 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에 같이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할 뿐입니다. 또 아빠를 원망하진 않을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나중에 더 크게 보상해주자고 마음만 수없이 다짐합니다. 치매 가족분들! 힘냅시다!

Letter 09

편의점에서 만난 아이

이영민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나는 야간 일을 하느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른 아침에 편의점에 들른다.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특히 먹고 싶은 것이 라면이다. 그것도 컵라면을 먹고 싶다. 가방에 쏙 들어가고 뒤처리도 깔끔한 컵라면! 아내가 알면 잔소리가 꿈에서도 들릴 지경이겠지만 아침에 라면에 소주 반병 먹으면 4시간 정도는 쿨쿨 잘 수 있으니 매력적일밖에.

야간 근무를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했던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이 사라지면서 24시간 업장들은 근근이 생존하면서 좀 나은 영업을 위해 아직도 고전 중이다. 야간 근무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면시간이 4시간 이상인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계 돌아가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민쟁이가 많다. 남들은 '야간에는 생산성 없는 관리 위주니까 시간 되면 잠 좀 자겠지?'라

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옛날얘기다. 요즘 예전처럼 잘 거 다 잤다가는 일 잘해도 잘린다.

잠 좀 자겠다고 20년 가까이 아침에 그리 먹었으니 당뇨가 안 올래야 안 오겠는가. 나름 식단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그나마 소주는 딱 한 잔! 오늘도 아내가 교회 간 사이에 컵라면을 후딱 먹고 흔적을 지울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편의점에 가니 아침부터 꼬마 손님 두 명이 계산대에 서 있다. '부지런한 꼬맹이들이군'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오늘은 어떤 라면으로 먹을까' 고르는데 계산대에서 한 꼬마가 하는 말이 들렸다.

"언니,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라면 두 개 먹어도 되지?"

순간 당혹감이 몰려왔다. 잉? 내가 잘못 들었나?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러니 대부분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집에 있을 법한데 그리고 이 동네는 부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산층도 있는 동네인데! 꼬마들이 가고 나서 내 것을 계산하며 그냥 물어봤다.

"자주 오는 애들인가?"

"저는 주말 알바라 잘 몰라요. 그런데 2주 전에도 빵하고 우유 사간 거 같기도 해요."

얼핏 대한민국에 결식아동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사실 두어 달 전에 그 얘길 듣고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먹방 하는 걸 보니 헛구역질이 나와서 그런 방송은 피하는 중이었다. 결식아동. 듣기만 했던 소문이 바로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동차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셨다. 잔업이 있는 날이면 공장에서는 빵, 우유를 주는 것 같은데 우유는 거의들 마시고 빵은 안 먹는지 어머니가 모아서



오시곤 했다. 누군가 먹기 싫어 놓아 둔 빵이 우리 집 냉동실에는 쌓일 정도로 많았고 한동안 그 빵이 내 주식이었다. 못 배우고 허드렛일만 하셨고, 암으로 고생하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 어머니가 남이 먹지 않는 빵을 모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도 빵이 그리웠을지 모른다. 어느 날은 라면 부스러기를 가지고 와서 끓여주시던 어머니. 공장에서 왜 라면 부스러기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내가 군 제대 후 그 공장에서 잠시 알바 하다가 알게 됐다. 그곳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없기에 잘게 부수어 라면 봉지에 더운물을 넣고 먹기 때문이었고 그마저도 남이 남긴 걸 가져오셔서 삼 형제에게 주신 것이었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급식카드로 결제하던 꼬마들 모습이 선명하다. 나라에서 이런 아이들 정말 도와주고 있는 거 맞겠지? 혹시나 또 만난다면 무엇이든 한 아름 사주고 싶다.

Letter 10

용돈

김용정 |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용돈'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명사)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일상적으로 쓰는 돈'이라고 적혀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용돈을 부모님에게 드린 일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용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한 번도 돈을 드린 일이 없는 것 같다.

대학 재학 중 군대에 갔고 전역하여 집에 와보니 어머니는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몸져누워 계셨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보기 싫다고 시골에 사는 큰형님 집으로 떠나 계셨고 어머니는 환자가 되어 홀로 누워 계시니 당시 나는 용돈을 드릴 처지도 못 됐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릴 대상이 없었다.

얼마 전, 고교 동창회에서 아들을 장가보낸 친구와 뒤풀이 겸 커피를 마시는데 친구가 물었다.

"너희들은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받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좌중은 모두 의아해서 "용돈?" 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다들 나이를 꽤 먹었지만 아직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을 정도로 늙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낯선 듯했다. 질문을 던진 친구의 말속에는 '아들이 장가를 가니 며느리가 용돈을 다 챙겨준다'라는 자랑이 은근하게 배어 있었다.

그렇고 보니 나는 참 둔한 사람이었나 보다. 장모님 살아 계실 때 친지들 모인 자리에서 사촌 처제가 물은 적이 있다.

"형부는 장모님께 한 달 용돈 얼마나 드리세요?"

그때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 용돈?" 하고 얼버무리자 장모님께서 황급히 "용돈은 무슨 용돈! 너희 형부가 사시사철 옷 다 사주고 대소사 다 챙기는데…"라며 황급히 말을 가로막으신 적이 있다. 그땐 풍족하게 잘해 드리고 있고 아내가 가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장모님께 용돈 챙겨드리는 일은 내 할 일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 또한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나? 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도 했더랬다.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나의 두 딸은 장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셨다. 딸들이 장모님 양옆에 좌우로 앉아 뭐든 사달라고 조르면 "그래그래 이쁜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다 사줄게" 하시며 한 번도 거절을 안 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런 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되돌아 생각해보니 용돈의 필요성에 너무도 아둔했던 내가 미움을 넘어 바보 같았다는 자책감이 든다.

얼마 전 회사에 다니는 딸이 월급을 탔다며 '아빠 용돈'이라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사위 보기가 민망하여 봉투를 다시 딸 앞으로 내밀며 "너희 시어머님께나 갖다 드려" 하니 "시어머니는 30만 원,



아빠는 20만 원이야. 요즘은 다 그래~"라며 딸이 세상 풍속도까지 설명해준다.

"아버지는 용돈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잘살아."

큰소리를 치며 끝끝내 봉투를 돌려주었다. 그래도 기분이 좋았다. 딸이 아버지보다 트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믿음이 간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가능한 용돈은 안 받아도 되는 아버지로 살고 싶다.

Letter 11

집안이 쓰레기통

애청자

저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9월에 신부가 될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자라면서 한 번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기 일은 똑 부러지게 잘하고 제 마음을 잘 알아주며 집에 다녀가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집에 없는 것들을 보내주고 결혼자금도 알뜰살뜰 잘 모았답니다. 이런 딸을 시집보내려니 아까울 지경입니다.

예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바지 음식을 어찌하나?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만 저의 고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집에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깊은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딸의 아버지, 즉 제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정년퇴직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캠핑카를 사서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소리 없이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혼자만 멋있게 삽니다.

남편은 딸의 결혼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돈도 어찌하는지 아예 모르고요. 남편은 게을러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방에서나 거실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담배를 심하게 피워대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답니다. 화장실이 담배로 찌들어서 누런 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일로 딸이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게을러도 너무나 게으른 게 문제입니다. 모든 물건은 손에서 놓으면 그게 제자리입니다. 집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듭니다. 본인 방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라고는 전혀 친 적이 없는데 중고 라켓이 8개나 되며 택배 오면 버리지 않고 모아둔 크고 작은 아이스박스가 12개나 베란다에 쌓여 있으며 심지어 농사지을 때 필요한 농기구도 방안에 그득합니다.

저는 하루 13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울 기운도 남아 있지 않지만 어쩌다 힘들게 치워도 사흘 안에 모든 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가 됩니다. 남편 짐이 많아서 치우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치우면 잔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식구들이 나서서 좀 치우자고 하면 다들 나가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누렇게 흘러내린 물 자국. 집안 전체에 찌든 담배 냄새. 집안이 쓰레기장이다 보니 딸이 사윗감에게 집을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합니다. 청소와 도배와 장판이라도 교체하고 가구도 바꾸고 싶지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결혼식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집 치우기 전엔 집에 오지 않겠다는 딸과 치우지 못하게 하는 남편 사이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Letter 12

우산 폭, 가슴 폭

이창헌 | 경북 경주시 와산2길

오전부터 비가 제법 많이 내리더니 온 세상이 회색빛 일색이 됐답니다. 날씨 탓에 기분도 그렇고 해서 점심때 맛난 거라도 먹어볼까 싶어 회사 밖으로 나왔죠. 우산을 썼지만 뿌려 대는 빗방울을 다 막을 순 없어서 어깻죽지가 차츰 젖어 들더니 이내 찜찜한 느낌에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산 폭이 좁은 거야. 아이! 참.'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선 엄마와 어린 여자애가 보였어요. 엄마는 큰 우산, 아이는 앙증맞은 작은 우산.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그들 곁으로 다가와 서더니 함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지요.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듯 보였는데 목줄에 매인 강아지는 새하얀 털에 크고 예쁜 눈동자를 가진 몰티즈였답니다. 제가 봐도 참 귀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사이 빗방울이 더 요란해진 탓에 강아지의 작은 몸은 점점 비에 젖어만 갔습니다. 그 순간 어린 여자애가 살며시 강아지에게로 다가가선 자신의 작은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수한 동심을 가진 아이의 눈엔 사람도 강아지도 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보였던 거겠죠?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셨고 여자아이의 엄마도 덩달아 다가와 웃으셨지요. 그렇게 두 분

아주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레 대화를 주고받으셨답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강아지 이름은 뭔지 등등.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이 전 그렇게도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어른들 간의 경계심마저 쉬이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아지에게 자신의 작은 우산을 애써 씌워주려는 여자애의 그 고운 맘씨가 자칫 회색빛으로 물들 뻔한 세상 풍경을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파스텔톤으로 바꿔준 것만 같아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저 꼬마는 작은 우산으로도 세상을 따뜻이 감싸주고 품어 안을 줄 아는데 난 그보다 큰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뿐이라니…' 좀 전에 불평을 늘어놓았던 우산의 폭이 마치 좁디좁은 제 마음속 폭만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건널목을 건너 다정히 헤어지던 그들의 모습. 더욱이 마지막까지 강아지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던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이란 결코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에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소소한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애써 찾고 느끼려는 마음 자세가 아닐는지요. 비록 홍건히 젖어 버린 어깨 때문에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대신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한 탓에 제 가슴은 어느새 촉촉한 행복감으로 흠뻑 젖어 있었답니다.

이젠 저도 들고 있는 제 우산 폭을 갖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세상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느끼고 품어 안을 수 있게끔 제 마음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가르침을 주고자 오늘 네 명의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Letter 13

청소 아주머니가 준 감동

황지영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저는 3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느낀 감동이 너무 깊고 커서 이렇게 사연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며 두 아들을 등원시킵니다.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고 치우고 큰 볼일도 한두 번씩 처리해주고 세수 시키고 양치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도시락 가방을 챙기고 감기약을 먹이고 점심 약도 챙겨주고, 요즘은 둘째가 발에 습진이 생겨서 연고도 발라주고. 모든 일을 두 번씩 해야 하니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중간중간 아이스크림을 달라, 사탕을 까 달라, 이것 좀 쳐다봐 달라 아이들의 요구 사항도 끊임이 없습니다.

일이 있을 땐 같이 나가야 해서 저도 씻고 후다닥 청소, 빨래 개기, 쓰레기 버리기 등등을 합니다. 등원 2~3시간 전에 일어나도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곤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등원시키며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를 버리려고 아이들과 가방과 낮잠이불을 유모차에 걸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언제 뵈어도 늘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주고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써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분이십니다. 역시나 오늘도 제 유모차에 주렁주렁 걸린 쓰레기를 보더니 아무리 사양하고 냄새가 나는 기저귀들이라 제가 버리겠다 해도 굳이 버려주겠다며 뺏어 들고는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으십니다. 본인도 아들들만 키워봐서 안다며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라고 쓰레기는 본인이 버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 왠지 모를 짠함과 감사함과 반성이 뒤섞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들어와서 빵과 음료수를 쇼핑백에 넣어 짧은 쪽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걸어두고 올라왔더니 금세 좇아 올라오셔서 되레 미안하고 감사해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네요.

사실 요즘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어서 더 그랬는지 아주머니 앞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시는 아주머니. 일상에 찌들어 잠시 또 잊고 살았던 반성 모드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더 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14

93살 순애보

안정일 | 경기도

나는 93세입니다. 나에게는 4살 연하인 89세의 소중한 아내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유복자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12살에 엄마를 여의고 큰형님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아온 것을 너무 안쓰러워합니다.

나와 아내는 69년째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쌀 한 바가지로 시작한 신혼살림의 궁핍과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고생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시간을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서로 의지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의 아내는 지금 광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지냅니다. 나는 보성 득량에서 홀로 지냅니다.

음력 5월 14일은 우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생선과 과일을 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산을 오르기 불편하여 장남에게 산소에 다녀오

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버지, 나와 아내가 편안하게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곧 뵙겠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막골 우리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군 머리까지 나와서 보성 군내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갑니다. 보성 읍내에서 아내에게 줄 자양강장제와 두유, 보성장에서 파는 맛있는 떡과 빵을 사서 30분마다 한 대씩 있는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 학동 터미널에서 또다시 택시를 타고 요양원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2020년 5월, 아내가 요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3등급의 나의 아내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아들의 차를 타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퍼지는 때와 겹치면서 아내의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눈물과 회한으로 보낸 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2층에 있는 아내를 1층 정원에서나마 볼 수 있는 면회가 허락되면서 먼발치에서라도 보려고 힘든 줄 모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과 요양원에 가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광주 터미널에 내리면 아들딸이 마중을 나오기도 하지만 혼자 택시를 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하지만 번번이 미안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되는 게 싫어서 혼자 훌쩍 다녀올 때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기도에 사는 막내가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광주의 둘째, 셋째 딸과 함께 보성에서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허전한 마음을 채웁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마음 달래기가 힘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때로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혼자 하염없이 앉아있기도 합니다.

나의 아내는 날마다 내게 말합니다.

"나를 언제 집에 데려 갈라요. 집에 가고 싶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이라도 데려와서 내가 보살펴 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줄곧 좋지 않습니다. 아내는 종종 전화로 '소양강 처녀'를 부르며 마음을 달랩니다.

"해 저문 소양강에~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는 어쩌나, 아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끝없이 부르는 아내의 노래에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서 대면 면회가 가능했을 때 외출을 허락받은 아내는 내 손을 잡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 한 번 달아봅시다. 얼굴이 왜 이리 새카맣고 눈이 왜 이리 작아졌습니까."

한없이 애틋해하며 또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자운디…."

그 말을 듣자마자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은 참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간병인들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너무 애타게 그리워하세요. 날마다 '우리 남편 안 와요?'하고 물으세요."

때로는 그리움에 때로는 원망으로 나를 찾는다는 아내는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온갖 작물을 재배하여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는 청심환 두 개를 들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이가 거의 없

는 아내가 다른 간식보다 몰랑몰랑한 청심환을 잘 먹어주니 흡족했습니다. 오늘도 사 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다시 대면이 금지되었다 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번 다녀오는데 7만 원 이상 드는데 손 한 번 못 잡고 오는 상황은 너무 힘겹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내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다 잘 된 거."

"그럼 가장 후회되는 것은요?"

"… 없다."

내 마음의 텅 빈 구멍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나는 아프고 또 아픕니다. 요양원에 있는 아내는 항상 내 걱정뿐임을 알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밥을 잘 먹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내 양말은 누가 세탁하는지, 잃어가는 기억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내 걱정뿐입니다.

나의 아내는 나를 나의 어버이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좋아해 준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돌아가는 길이 평안하길 바란다오. 꼭 그리되길 바란다오. 참말로 고생 많이 했소. 참말로 미안하고 고맙소."

- 당신의 남편이 -

Letter 15

추억 남겨 주신 아버지

김경주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매달 매일이 특별한 달이고 날이지만 요맘때는 더욱더 아버지가 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주고 가셨기에 항상 감사하는 맘이 크다.

내가 아주 어릴 적 딱딱한 복숭아 씨앗을 망치로 깨어 그 안에 있는 씨를 모으고 밤이면 가족이 옹기종기 다 둘러앉아 밀가루 풀 쑨 걸로 신문지 접어 복숭아에 쓰울 봉지 만들던 기억이 난다. 난 막내라 잠깐 거드는 정도였지만 내 위의 형제들은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달인 수준이었다.

아버지는 청과시장에 가서 많은 복숭아 품종 씨를 자루에 담아 오곤 하셨다. 남들은 벼농사로 한창일 때 아버지는 과수원에 여러 작물을 심고 계셨다. 경남 창원에서는 당시 사과 재배하는 곳이 없었는데 홍옥, 부사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약간은 퍼석퍼석하고 새콤달

콤한 커다란 인도 사과도 심으셨다. 인도 사과는 황금배 색과 비슷하면서도 진한 사과 향이 나는 과일이다. 그 외에도 우리 집은 과일 천국이었다. 알알이 엄청 작은 포도, 하늘수박, 여주, 앵두, 풍개, 배, 매실, 살구, 복숭아, 참외, 수박, 감 등 우리 과수원은 겨울을 빼곤 늘 쉼 없이 돌아갔다.

그중 가장 자랑하고픈 과일이 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초등 2학년부터 9년간 조합장을 하셨던 아버지는 쉬는 날엔 늘 무언가를 연구하고 계셨다. 해마다 채취한 복숭아씨로 아버진 접을 붙였고 나무 심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셨다. 딱딱한 복숭아도 심고 물렁물렁한 복숭아도 심고 그렇게 몇 년을 심고 관찰하기를 쉬지 않으셨다. 과실수는 보통 심고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냥 정성만 주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던 어느 날, 한 나무에서 한 가지는 물렁 복숭아, 한 가지에는 딱딱이 복숭아가 달리게 되었다. 어린 우리는 요술나무라 불렀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구경도 왔다. 그러다가 드디어 색도 예쁘고 맛도 끝내주는 '호기도'가 탄생했다. '김' '호'자 '기'자 '김호기'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딴 '호기도'.

시장에 가면 나의 눈은 아버지 복숭아를 찾고 있다.

"호기도 나왔어요?"

"아직 좀 있어야 나오는데 그거 요즘 인기 없는데 우째 알아?"

"우리 아버지가 개발한 복숭아예요. 그거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버지는 개발한 묘목을 소문 듣고 멀리서 오신 분들께 그냥 나눠드린 적이 많다고 했다. 아버지의 욕심 없는 유명 일화가 있으니 시의원 하시려고 선거에 나갔을 때 당신이 본인을 어찌 찍냐며 상대방을 찍은 분이다.



그리고 종종 옛날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다. 더운 날에 들려주신 아버지 말씀도 기억난다. 염소는 여름에는 붙어 지내고 겨울에 떨어져 지낸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여름에 떨어져 있으면 상대가 시원할까 봐 겨울은 그 반대라 말씀하시며 염소 성격은 닮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재미난 얘기가 무궁무진하지만 우리 형제가 많이 웃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한다.

옛날에 몹시 가난했던 단이 집에 도둑이 들었단다. 도둑이 아무리 둘러봐도 훔쳐 갈 것이 없자 부엌으로 들어가 설탕을 먹고 있었는데 외출한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단아~."

"달다."

그리하여 도둑이 잡혔다는 얘기 등등 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보따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멋쟁이셨다.

"현성아~."

"할아버지, 저 성현인데요?"

"그래~ 현성아~."

당뇨 합병증으로 그 힘든 투석을 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셨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나도 힘든 순간에도 늘 웃음과 함께했던 것 같다.

복숭아 철이 되면 나는 제일시장으로 가서 묻는다.

"호기도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집 과수원에는 감만 남아있다. 감도 과연 우리 아버지 감밭답게 단감, 떫감, 연시, 대봉, 반단감 등등 다양하게 있다. 감 잎사귀를 보고 떫감 정도는 구분하지만 반은 달고 떫고 그래서 내가 붙인 이름인 '반단감'은 열매를 봐야 구분한다.

아버지 요술 나무도 없고 호기도도 없는 과수원이 되었지만 전국에 두루두루 심고 그것을 잘 지켜주는 분들이 계셔서 이 또한 감사드린다. 올해도 난 호기도를 먹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할 거 같고, 난 '김' '호'자 '기'자 막내라는 사실에 오늘도 무지 행복하다.

이달의 손편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철호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회로

아주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뒤 많은 세월이 흐르고,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시골에서 갑니 부산에 다니러 오셨던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타고 동래 온천장에 사는 고모님댁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부둣길을 따라가다 군 전용 부두인 3부두 옆을 막 지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부두에 정박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배 한 척이 시야에 들어오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탄사를 연발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거대한 선체의 모습에 놀라고 또 감탄하며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나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지고 또 창피하기도 하여 아버지의 천진무구한 그 반응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빨리 그 버스가 부둣길에서 멋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게 철이 없는 아들놈의 처신이었지요.

그후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내가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힘겹게 하사관 교육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셔서는 저를 만나 보고 돌아가는 길에 거금 5천원을 건네주며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그런 뒤, 두어 발짝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는 허리춤에 꼬깃꼬깃 접은 채 감추어 두었던 삼천원을 그천 원을 더 꺼내어 제 손에 쥐어 주며 돌아서셨는데 그 순간 얼핏 본 아버지의 눈시울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무척이나 약골이었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건강하고 또 씩씩한 모습으로 변한 걸 보며, 입대하게 된 몸뚱이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그때의 아찔했던 순간이 떠올랐었나 봅니다.

그날, 생전 처음 본 아버지의 상기된 모습과 굵은 눈이 박여 꺼칠꺼칠한 손바닥으로부터 전해지던 그묵직한 찌릿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궁핍한 가정형편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나뭇짐을 세워 놓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를 파하고 귀가하던 몇몇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게 너무 부러워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주저 앉아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후에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 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뼈저린 이 사연을 전해 듣기 전에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자식들의 학교 교육에 집착하고 또 열성적이었던 그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배움에 대한 지독한 열망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이 없었던 시절, 나는 거북등처럼 갈라 터진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을 보며 어른들의 손은 원래부터 다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되도록 일하고 그리하면서 사신 부모님의 피땀과 숭고한 정신의 결정체는 우리 집의 주춧돌이 되었고 우리들은 그 위에서 멋모르고 뛰놀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엄숙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덧없는 세월이 흐른 뒤, 또 다른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를

보고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항 제3부둣길입니다.

"아버지, 저 큰 배는 주로 군인들을 수송하는 군 수송선입니다. 지난번 월남파병 때도 저 배를 이용하여 군인들을 월남까지 수송했답니다. 저도 이곳에서 열렸던 파월 장병 환송 행사에 두 차례나 참여했는데, 그때 갑판 위에 도열하여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던 장병들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여 믿음직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문득 생각으로 복잡할 것 같은 그들의 심경이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없던 시절, 그날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취했던 그 못나고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또 반성하며 생각해둔 이 말을 아버지께 꼭 전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이제는 잔잔한 그리움으로 변신하며 가끔 제 주위를 맴돌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가갈 수 없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여태껏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부끄럽고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토로하고 나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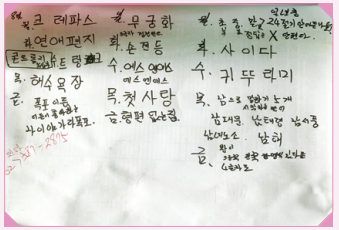
여성시대 사진방



[0622] 아이가 월간 여성시대를 고사리손으로 넘겨 가며 정독(?)하기에 사진 찍어 봤어요.



[4457] 여기는 포항입니다. 엄마 사는 집이 태풍으로 엉망이 되어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태풍 너무 무섭네요.



[0827] 저희 엄마 매일 여성시대 뇌 풀기 퀴즈에 진심이십니다. 덩달아 저도 옆에서 풀고 있네요.



[4471] 서예 하는 친구들 모아 대학로 뮤지컬 보러 갔다가 그렸던 인물화입니다.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올려봅니다.



[2027] 아침에 남편이 하얀 봉투를 주기에 열어보았더니 그동안 모은 용돈이라며 건네주더군요. 용돈도 조금밖에 안주는 데 언제 모았는지, 감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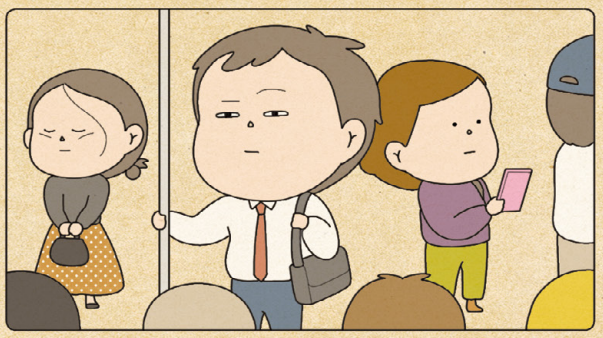
[3685] 포도 선별하면서 여성시대 초성 퀴즈 참여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웃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인천 남동구 논현로의
여성시대 가족 이주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뭔가 허전한 이 기분



아침도 먹었고, 핸드폰 챙겼고, 지갑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





이어폰 한 짝을 떨구고 열차에 오른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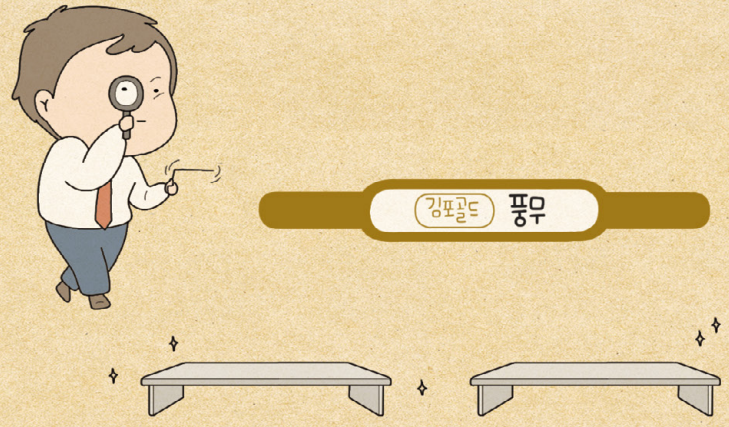


버스였다면 기사님께 부탁이라도 해보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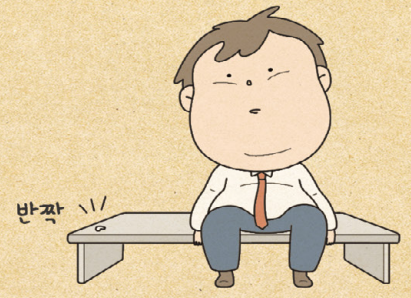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래도 출근은 해야 기에
회사에 가서 출근 도장을 찍은 후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내 이어폰은 어디에도 없었다.

힘이 쭉 빠져 승강장 벤치에 털썩 주저 앉은 그때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던 내 이어폰!



혹여 밟힐까 봐 의자에 얌전히 올려놓아준 그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거래고객

㈜청담글로벌 최석주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MZ세대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온라인 구매가 훨씬 편하다. 이미 몇 년 전 젊은 CEO의 감각으로 향후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통채널을 변화한 청담글로벌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꾼다.

청담글로벌은 화장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영유아 제품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브랜드로 가치 매김 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및 유통을 일원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통 전문회사다.

지난 2017년 창업해 무역업을 하던 최석주 대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고 2019년부터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징동닷컴, 알리바바 등 온라인 시장에서 11월 11일 광군제 하루에만 조 단위 상품이 팔려나갈 정도로 중국에서는 이커머스 시장이 호황이었어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화장품 관련 제품을 시작으로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담글로벌은 경쟁력 있는 국내외 화장품 및 이너뷰티 제품을 중화권과 동남아 이커머스 플랫폼에



납품하며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가장 처음, 헤라, 메디힐, 차홍 등 25개 이상의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유통하였고, 이어 랑콤, 키엘, 에스티로더, 에스케이투 등 해외 브랜드를 유통하며 입지를 넓혀나갔다.

청담글로벌의 가장 큰 매출처는 중국이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징동(JD)닷컴,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 15개 이상의 판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 유통망을 확장 중이다. 현재는 컨설팅 회사로서 각 고객사의 판매 전략과 수립 등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판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외 브랜드에 유통 방법과 가격 정책, 홍보물 컨셉을 제안하고 개발 및 제조 단계에서도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와 구매가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업 첫해 매출 280억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1,44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하였고, 2021년에는 제57회 무역의 날 '2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청담글로벌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스킨케어 브랜드 '루미에벨'을 론칭하고, 자회사 '바이오비쥬'를 설립하여 생산한 필러와 지방분해제 등을 병원과 피부관리숍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간 해외 명품 화장품 유통 사업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직구 플랫폼인 '바이슈코'를 오픈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기업에서 창출된 이익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도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사회에 더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양용준 지점장은 "처음 기업은행과 인연을 맺었을 때는 창업 기업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능성을 보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다"며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하며 IBK기업은행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청담글로벌이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 환율 변화에 대비한 컨설팅 및 여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며 사회공헌활동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는 최석주 대표가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선순환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CEO를 비롯해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서른이 채 되지 않는 젊은 기업 청담글로벌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청담글로벌 최석주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송도GCF지점 양용준 지점장

㈜청담글로벌 최석주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2. 시장의 변화를 한발 빠르게 포착하라.
3. 기업의 이익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라.

㈜청담글로벌
대 표 최석주 **전 화** 032-721-8211 **홈페이지** www.chungdamgroup.com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번지 송도센트로드 오피스 B동 2401호

도심 속 프리미엄 요양원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거래고객
메디컬요양원 김원정 대표

글 | **문수민**(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노령 인구가 늘면서 전국에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쾌적하고 넓은 시설의 요양원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편리한 교통과 넓고 쾌적한 시설, 접근성 좋은 의료 서비스와 우수한 인력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두루 갖춘 메디컬요양원이 도심 속 프리미엄 요양원의 시작을 알린다.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도래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부모 부양 부담이 늘면서 요양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요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대부분 요양원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나면 찾아뵙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개원한 메디컬요양원은 서울·경기 어디에서나 올 수 있는 10여 개의 버스노선이 있고 청량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보호자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도심에 위치한 대부분의 요양원과 달리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것도 또 하나의 자랑이다. 보호자들의 니즈에 따라 1, 2, 3, 4인실의 다양한 크기의 생활실을 갖추었고, 각 생활실을 규정 기준 면적보다 2배 가까이 넓게 만들어 불편함과 답답함을 줄였다.

그뿐만 아니다. 건물 한 개 층 전체를 프로그램실로 만들어 어르신들이 체육, 미술, 인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활운동치료실에 설치된 워크메이트를 이용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퇴행을 막기 위한 보행 연습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에서는 전문적인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요양원 건물 1층에 정형외과가 위치해 기본적인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고 위급 상황 시 의료진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 동대문구에 위치한 요양원 건물의 1층에 있는 정형외과는 매일 2~300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30년이 넘은 전통 깊고 실력 있는 병원이다. 특히 위치적 특성상 평소 고령 환자가 많아 요양원과의 연계 치료에 강점을 보인다.

이번에 메디컬요양원을 개원한 김원정 대표는 이미 10년 전 요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전공의 전문가다. 10년 전과 환







경은 많이 바뀌었지만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들고 싶은 꿈은 변함이 없다.

"6년 전까지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육아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시 요양원을 개원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한 걸 느낍니다. 제가 처음 요양원을 운영할 당시만 해도 요양원 수가 별로 없는 데다 규제 또한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입소자와 보호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법과 규정도 많아져서 생각보다 개원이 연기됐어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입소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야심 차게 개원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대면 면담이 제한되고 직원들은 매주 PCR 검사를 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로 입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 아직 병상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면회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요양원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홍인의 지점장은 "요양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노인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메디컬요양원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

무슨 일이든 보호자와 입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는 김원정 대표의 따뜻한 마음이 요양원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IBK기업은행 서초남지점 홍인의 지점장(왼쪽)과 메디컬요양원 김원정 대표

메디컬요양원 김원정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라.
2. 입소자를 가족같이 대하라.
3. 요양원과 요양병원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

메디컬요양원
대 표 김원정
전 화 02-965-4008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24, 2층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kdhos3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81 스포츠 스타들과의 군 생활
86 이상한 군대 이야기
91 KGB 방위

사랑탐구생활

97 나의 선장님께
100 풋풋하고 다정했던 그때

주말엔 투유

105 '어린 왕자'가 준 교훈
107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장용의 단·필·충

스포츠 스타들과의 군 생활

강명성 | 경북 포항시 북구

1999년 10월 입대했습니다. 논산훈련소로 입소하여 별 탈 없이 보내고 자대 가기 하루 전, 조교님이 저한테만 귓속말로 말해주시더군요.

"너, 상무 간대."

훈련소 내무반에 와서 동기들한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상무? 에이~ 상무대겠지?"

"상무대? 아닌데 분명히 상무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있냐? 상무는 운동선수들이 군 복무하는 덴데 네가 운동선수야?"

"아니."

"거봐. 그러니까 너는 상무가 아니라 상무대지."

"상무대, 거긴 뭐 하는 덴데?"

"상무대는 아마 전라도에 있을걸. 육군 최대의 군사교육 시설."

"육군 최대의 군사 교육 시설? 오~ 그거 좀 멋있다."

"그래 너는 분명히 상무대야. 상무 아니고 상무대."

"그치?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 난 운동이라면 숨쉬기밖에 안 하거든. 근데 내가 무슨 상무를 가 상무를 가긴."

그렇게 자대 배치를 받는 날, 전라도 어딘가에 있다는 상무대로 가겠지 생각하며 기차에 올랐는데 내려 보니 용산역이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차는 개구리 색깔 군용 트럭이 아닌 보라색 승합차. 게다가 거기엔 아주 선명하게 '국군체육부대'라는 글자와 함께 불사조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나 진짜 상무 가는 거야?"

티브이에서만 보던 상무. 경기 전 애국가가 흘러나올 때 일반 선수들은 가슴에 손을 얹는데 멋지게 태극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던 선수들이 있는 곳. 제가 진짜 그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보라색 불사조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가 왜? 혹시 훈련소 때 내가 족구랑 축구를 좀 잘했나? 하긴 옛날 군대에서는 특기병 뽑을 때 공 하나 던져주고 그중에 제일 돋보이는 놈을 차출했다고는 하던데 나, 진짜 그래서 뽑힌 거 아냐? 그럼 나를 어떤 종목의 선수로 뽑았으려나. 축구 미드필더, 스트라이커, 아니면 혹시 농구나 배구 그쪽인가?"

혼자 오만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동안 불사조 차는 부대 앞에 도착했고 저의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불사조 상무'에 온 걸 환영한다. 입대 전에 운동했던 종목으로 지원서 내고 실기 테스트까지 거쳐서 선발된 선수들은 이쪽, 그냥 일반 신병 너희들은 이쪽이다."

국가 체육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방 스포츠 외교를 추진할 목적으로 선발된 프로 선수들이 입대하는 곳. 저는 그곳의 일반 신병, 그러니까 상무 소속 기간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대 안에서는 군기가 가장 세다는 위병소, 부대 정문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내무반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침상에 엎드려 있고 한 명은 그 위에 올라타서 안마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구석에서 뭘 잘못했는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군요.

"신입이냐? 거기 A4 보이지. 일주일 시간 준다. 다 외워라!"

왔냐는 인사도 없이 선임이 날려준 종이엔 상무 부대 출입 차량번호와 직책 그리고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부사관 장교뿐만 아니라 운동 종목들마다 감독이며 코치, 장비 납품 차량들까지 하루 최소 150대에서 200대까지 차량이 출입한다고 했습니다.

'뭐야, 이 많은 걸 다 외우라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눈앞이 깜깜하였습니다. 특히나 새벽 근무 시간에는 선임들의 스피드 퀴즈가 시작됐는데 선임이 부르는 차량번호가 누구의 차인지 3초 안에 답해야 했습니다. 훈련이 많은 부대는 밖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느라 내무실에 들어오면 다들 쓰러져 쉬기 바쁘다던데 우리 부대는 그런 훈련도 거의 없어서 선임들은 24시간 아주 힘이 철철 넘쳐 주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우리의 생활은 점호가 끝나면 세면장으로 집합하여 일렬로 한강 철교를 만들었고, 그럼 상병 말 호봉의 선임이 메모지를 꺼내어 "장 일병, 넌 오늘 아침 기상 시간에 좀 늦더라? 양 이병, 넌 경례를 좀 멀리 있다고 안 하던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메모를 해뒀다가 저녁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병을 달면서부터는 즐거운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상무 기간병들은 선수 병사들과 달리 새벽에는 무조건 근무를

서야 했기에 아침 10시까지는 근무하고 돌아와서 오침을 하였고 오후 근무를 서고 와서는 PX 빵을 먹고, 족구나 축구 시합한 후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즐겼습니다. 각종 스포츠 시설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꿇리지 않았습니다. 실내 나무 바닥이 깔린 경기장에서 농구를 하고 인조잔디가 깔린 하키장에 골대를 세워 놓고 축구를 했으니까요. 물론 천연잔디가 깔린 진짜 축구장도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샤워실은 선수 숙소에 24시간 온수가 콸콸 나와서 저희도 언제든 마음껏 온수 샤워를 할 수 있었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 군 생활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갓 병장을 달았을 때, 2001년 6월쯤이었습니다. 병장이 되면 선수들이 훈련하는 단련장,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헬스장에서 일과시간 후 운동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전역이 한 6개월쯤 남았을 무렵 '어디 나도 몸 좀 만들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벤치프레스를 들고 있던 그때 단련장 2층에서 쩌렁쩌렁하게 관등성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병! 현주엽!"

"이병! 신기성!"

"이병! 강혁!"

"이병! 황성인!"

그렇습니다! 당시 최고의 농구 스타들이 줄줄이 상무부대로 입대한 것입니다. 상무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운동을 한 사이라서 든기로 이등병 한 달 동안만 군대 위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엔 원래대로 형 동생처럼 지낸다고 하더군요. 기간병인 우리들하고도 형 동생으로 부르고요. 그 말인즉, 저 역시 당시 최고의 농구 스타들과 곧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었죠. 신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토요일 오전까지만 훈련하고 오후에는 외박을 나갔다 일요일 저녁에 복귀했는데 한 번은 연대 출신 포인트 가드 황성인 선수가 부상을 당해 발에 깁스를 했을 때였습니다. 일요일 복귀할 때 제가 근무였는데 깁스한 발로 숙소까지 가는 게 무리다 싶어서 "형, 원래 외부 차량은 출입이 안 되지만 태우고 오신 분이 빨리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외부 차량 출입을 잠시 허락해주었고 고맙다며 형이 구단 사인볼에 친필 사인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또 당시 농구 감독님이 지금 대표팀 감독이신 추일승 감독님이셨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 과자 세트를 건네며 중저음 목소리로 "크리스마스 잘 보내라~" 해주셨고, 퇴근할 땐 항상 창문을 내려서 "수고해라~" 인사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차량 번호는 다 까먹었는데 감독님 차량 번호만은 기억합니다. 2001년 당시 하얀색 축제 차량 2293. 잘해주셔서 더 기억이 나나 봅니다. 이번 아시아 농구대회에서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아아! 그리고 또 한 대의 차! 제가 위병소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차량번호가 있는데요. 부대에 가수 김흥국 님이 오신 적 있는데 2001년 당시, 지금은 단종된 검은색 다이너스티. 차량번호가 이천이 이공공이었던 게 기억납니다. 특히 가운데 숫자 공공을 태극마크랑 축구공 마크로 꾸민 걸 보고 정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2월에 전역했지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농구에서 우리 부대 형님들이 맹활약으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티브이 화면에 대고 거수경례했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불사조 상무! 감사합니다.

장용의 단·필·충

이상한 군대 이야기

조남식 | 충북 음성군 대소면

80년대 초 대학 시절입니다. 학과 수업 중에 교련 시간이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땐 학기 중에 교련복을 가지고 부대 입소해 약 일주일간 군사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40여 년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여 학우들한테 편지 좀 써달라고 애원하고, 월요일 부대 입소하여 형들, 아니 군인들의 통제 하에 충실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목총으로만 실습했다면 부대에서는 사격할 수 있는 총으로 훈련받았고 대검도 꽂고! 찔러! 빼돌려 쳐! 등등 각개전투도 하고 영점사격도 했지요.

충북 살던 저는 조치원 향토 사단에 입소했는데 제가 다니던 공과대 학생들 외에 다른 학교 사범대 학생들이 함께 입소했습니다. 2개 소대는 공과대학, 2개 소대는 사범대학,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던 5

소대는 공대 반, 사범대 반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같은 학교 다른 과 학생도 잘 모르는데 타 학교 학생들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사이였죠. 그래도 일주일간 땀과 함성을 섞으며 지내다 보니 은근히 정이 들더라고요.

퇴소하기 전날, 내무반에 붉은색 취침 등이 켜진 후에도 다들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 쉽게 잠들지 못하고 시끌시끌 메모지에 맘에 드는 전우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적느라 바빴지요. 어떤 애는 열 명 이상 메모지 빽빽하게 주소를 따더군요. 저는 매력이 없는지 주소 달라는 인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 삐짐, 서운….

그런 저에게도 짧은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주소를 알고 싶어진 동기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각개전투할 때 제 옆에 있던 친군데 4~50명의 훈련병 중에 유독 눈에 띄었지요. 내성적인 듯하면서도 은근히 솔선수범하고 목소리만 크게 나대는 아이들과 달리 조용조용하게 목표 달성에 강한 저랑 비슷한 성격 같았어요. 키도 저랑 비슷하게 178cm 정도 되고 외모는 최근에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정명석 변호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유석 씨를 닮았습니다.

대충해도 되는 훈련까지 땀 흘려가며 열심히 받고 무엇보다 항상 웃음 띤 모습에서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훈련 중에 잠깐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데 그날은 훈련 중에 학교 대항으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공대생들이 축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지요. 제가 골키퍼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골이 오질 않아서 잠시 골대 앞에 누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교관님이 말씀하시길.

"지금 장난합니까? 누가 훈련 중에 눕습니까?"

"훈련이요? 지금 축구 시합 아니었습니까?"

"지금 체육 시간입니다. 군대에선 체육도 하나의 훈련인 거 모릅니까? 철통수비! 상대 팀 약 올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골대 지킵니다!"

불호령이 떨어져서 민망했던 날이었죠. 훈련 같지 않은 훈련이 끝나고 몰래 모여서 담배 한 대 피울 때였습니다.

"넌 고향이 어디냐?"

"충남 아냐? 당진인디. 근처에 삽교천이 유명해야."

"아, 알지. 당진! 학교에선 뭐 배우냐?"

"인간의 활동무대! 지리를 '지리'하게 배우고 있지."

"그려? 충청도에 동굴 많잖아. 탐사 다니고 하면 재밌겠네."

"그치. 코펠 싸서 배낭 메고 텐트 치고."

"이야, 그거 좋네. 나도 함 해보고 싶다야."

"그려, 좋지."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친구에게 빨간 취침 등 아래 조용히 다가가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순순히 알려주더군요.

퇴소하고 대학 생활하다가 문득 생각나 편지를 날렸는데 약 한 달 후에나 답장이 왔습니다. 자취하던 친구라 본가에서 보고 늦게 답장을 했다더군요.

두세 번 더 주고받다가 겨울방학에 그 친구가 당진 고향 집에 초대해줘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물어물어 찾아갔던 기억도 납니다.

"어서 와유~ 우리 장남 핵교 친구라고?"

"할머니~ 핵교 친구가 아니고 군사 훈련하다 만났다니까유. 야는 공대예요. 공대."

"이잉~ 공대. 그랴그랴~ 공대 친구, 밥은 자셨는가? 와서 한술 떠유."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여동생 둘, 남동생 둘. 친구와 밥상에 둘러앉아 한 식구처럼 밥을 먹었지요. 어머님이 해주신 구수한 된장찌개랑 도라지무침이 너무 맛있어서 체면 불고하고 밥도 많이 먹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친구의 여동생은 충남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던데 맛있는 반찬을 알아서 제 앞으로 밀어주어 더욱더 꿀맛이었습니다.

다음날 삽교천도 구경하고 충북에 없는 겨울 바다도 실컷 봤지요. 다음 해 몇 번의 편지가 더 오가고 여름방학엔 제가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배낭에 쌀, 반찬, 텐트 준비해서 단양에서부터 몇 군데 함께 여행도 했습니다. 동굴도 가고 계곡에서 씻고 도담삼봉 근처에 텐트 치고 먹고 노래하고.

그러다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이기자 부대. 진짜 군대에 가보니까 교련 시간에 받은 군사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더군요. 아무튼 그 기간은 친구와 연락이 잘 안되었습니다.

말년 휴가 때 무작정 그 친구 집으로 갔더니 친구도 군대에 갔다고 하더군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친구는 이미 결혼하고 아이도 하나 있다 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도 전역해서 우린 다시 만났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친구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엔 금붕어 어항이 대세였던지라 커다란 어항을 선물했지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요.

얼마 후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친구의 아내가 제 아내를 불러내서 사고를 쳤습니다. 아기용품을 한 트럭 사준 거예요. 이것저것 빠짐없이 다요. 제가 해준 거라곤 어항이랑 차 샀다는 말에 카시트

사준 것 정도였는데 정말이지 되로 주고 말로 받아 왔더군요.

천사 같은 제수씨를 보면서 그 친구가 결혼 전에 우리 집에서 제 여동생 사진 한 장을 몰래 빼간 건 영원히 입 다물어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친구 부부는 제가 결혼할 때 패물 할 돈이 부족하다는 말에 선뜻 3백만 원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90년대 당시 도시가스 회사에 다니던 제 월급이 30만 원이었으니까 3백이면 정말 엄청 큰돈이었죠. 물론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이자 없이요.

세월이 흘러 친구의 할머니가 하늘로 가셨다는 전화 받고 쏜살같이 달려가 할머니 생각하며 인사도 드렸고, 2002년 월드컵에서 미국과 경기하던 날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말에 라디오 들으면서 달려갔지요. 도착해보니 다들 경기 보느라 상갓집인지 경기장인지 알 수 없었던 기억. 저희 부모님 상 치를 때도 당연히 그 친구가 다녀갔고요.

지난여름엔 당진 가서 어머니랑 친구랑 회도 먹고 하룻밤 묵고 왔습니다. 당진 근처를 지날 때마다 혼자여도 꼭 어머니한테 들러서 인사드리고 오는 지금은 그냥 한 식구나 다름없지요.

어느덧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 40년 전 교련, 군사훈련으로 만난 내 친구, 안성규! 남은 교직 생활 끝까지 잘하고 나도 공과생답게 계속 열심히 현업에 충실할 게. 파이팅!

장용의 단·필·충

KGB 방위

애청자

1988년 일명 쌍팔년도 9월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동네 분들은 우리를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꼭 '방위'라고 불렀죠. 흔히들 방위는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중대본부는 그럴 수 있지만 지서, 요즘 말로 파출소 무기고를 지키던 우리 방위병에겐 야간조 근무가 필수였습니다. 그것도 격일로 3개 조가 2시간씩 6명씩 조를 이뤄 밤새 무기고를 지키고 오전에 퇴근했습니다.

당연히 군기도 빡셌습니다. 중간선임이나 최고선임 레벨이 되면 신병이 들어오는 날, 항상 똑같은 메뉴로 정신훈련을 했습니다.

"신병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온다! 어쭈? 발바닥에 본드 부쳤냐?"

"아닙니다!"

"목소리 뭐야? 훈련소에서 모기 반찬만 드시고 오셨나? 어디서 뭐가 이렇게 웽웽거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냐? 엎드려! 기상! 뒤로 취침! 기상! 엎드려! 아쭈? 이거 3박 4일 걸리겠네. 정신 안 차려? 여기가 네 집 안방이야? 기상! 뒤로 취침! 엎드려! 기상! 똑바로 안 하나?"

이렇게 진을 바짝 빼놓고는 늘 정해진 각본대로 일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야, 신병. 우리 방위를 영어 약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영어 약자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입, 우리 방위는 말이야. 영어 약자로 KGB라고 한다. 알았나?"

"케이지비요? 그건 소련 특수부대 아닙니까?"

"그건 케~이~지~비~ 길게 발음하는 거고 우린 짧게 KGB다. 대대손손 방위 역사에 전해 내려온 심오한 뜻, 코리아 골든 방위!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병, 적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부대가 어딘지 아나?"

"그건 아무래도 특수부대? 아님 공수부대? 뭐 그런데 아닙니까?"

"똑바로 들어라. 바로 우리 KGB 방위다."

"에? 그건…."

"우리 KGB는 전시에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구령 붙여라."

"하나!"

"우리 KGB는 전시에 적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점령한다."

"둘!"

"우리 KGB는 적의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여 적에게 비상소집 허위

통지서를 배포해 민방위 체계를 교란시킨다."

"셋!"

"우리 KGB는 전시에 산에 올라 도시락을 흔들어 적의 레이더를 교란한다."

"넷!"

"우리 KGB는 위기 시 여차하면 대량으로 적에게 투항! 적의 군량미를 축낸다."

"다섯!"

"우리 KGB는 전시에도 매일 칼같이 퇴근한다. 해서 적들은 우릴 두려워한다. 우리가 매일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지 못해 긴장하고 우리가 품에 안고 다니는 사각의 신형 무기를 늘 두려워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입대하는 신참들을 놀려주며 소집해제를 기다리던 어느 날, 제가 왕선임이 되었을 때입니다. 혹한기 독수리 훈련으로 중대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혹한기 독수리 훈련은 쉽게 말해 예비군과 방위병이 한 팀이 되어 파출소 무기고를 지키는 훈련입니다. 대항군으로는 보통 특수부대 요원들이 오는데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뜻으로 무기고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럼 우리 예비군과 방위병은 그걸 저지해야 하고요.

"이번 혹한기 독수리 훈련은 대항군으로 특공대가 온다."

"특공대가 온다고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 대항군은 제군들을 해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들은 파출소 무기고에 빨간딱지를 부치러 온다. 그리고 우린 그걸 기필코 막아야 한다.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대장이 일급 시크릿, 중대한 작전을 하달하겠다."

당시 저희 중대장님은 유식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셔서 늘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서 쓰셨습니다.

"본 중대장의 오랜 경험과 필(feel)로 보아 이번 특공대는 분명히 하천으로 침투해 올 거다. 하천 낮은 물 그러니까 로우 워러. 이 추운 겨울에 설마 물로 헤엄쳐서 오겠어? 하는 우리의 뒤통수를 스트라이크, 후려치기 위해서 분명히 로우 워러 하천으로 온다. 알겠나?"

"야, 근데 중대장님 말씀하시는 하천엔 물이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데 헤엄이 가능하냐?"

"그래? 확실해?"

"확실해.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 친구들하고 뻥치기로 물고기 잡는다고 들어갔었어."

"그럼 말씀드려."

그리하여 동기가 질문 있다고 손을 들고 하천물이 어쩌고저쩌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중대장은 베리 앵그리,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체인지하더니 "야 인마! 너는 지금 마! 중대장이 중요한 작전 지시를 하는데 어디서 초를 쳐! 초를!" 셔터 마우스 하라고 분위기 살벌하게 일장 연설을 하더니 아무래도 찜찜했는지 "이번 독수리 훈련 때 예비군들은 개울 주위를 주시하도록 전달해라. 그리고 너희는 갈대숲! 대항군은 갈대숲으로 올 수 있다. 특히 그곳을 잘 지키도록!"이라고 말을 바꾼 후 사라지셨습니다.

부대 복귀하여 병사들에게 독수리 훈련 때 어떤 경우라도 무기고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드디어 훈련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날 야심한 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기가 가출한 예비군 형님들은 언제나 그랬듯 파출소 옆 구멍가게에서 군것질하고 추운 날씨라 끓여 먹는 라면이 최고라며 소주도 먹으면 안 되냐고 우왕좌왕 통솔이 되지 않아 애를 먹였습니다. 그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은 우리 친척 누나였고, 예비군들이 밤늦도록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주니 자정이 넘도록 불을 켜고 있었죠. 예비군에 치이고 추운 날씨에 지쳐가던 즈음 친척 누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속삭였습니다.

"야야, 귀 좀 대봐. 우리 집 가게 뒤뜰에 지금 군인이 3명 누워 있는데 한번 가봐. 너희랑 입은 옷도 다르고 모자에 무슨 새 마크 같은 것도 달려있고, 암튼 엄청 멋있어. 너희랑 달라. 한번 가봐."

"뭐, 군인이 자고 있다고? 우리 예비군 아니고? 아, 누나는 그걸 왜 인제 얘기해?"

"무서워서. 한두 시간쯤 3명이 들어와서 라면 시켜 먹고 계속 소주 달랬는데 내가 나라 지키라고 안 줬거든. 그랬더니 뒤뜰로 순순히 나가더라고. 한참 뒤에 조용해서 보니까 다 뻗어서 자고 있어."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대항군임을 인지한 저는 동네 공수부대 나온 예비군 형님과 방위 졸병 하나 데리고 가게 뒤뜰로 갔습니다. 정말 3명의 대항군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군요. 우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몸을 낮춘 채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꼼짝 마라! 우린 케이지비다! 움직이면 쏜다!"

어디서 구해 마셨는지 술과 잠에 취해 있던 대항군 3명은 이건 뭐야? 하는 얼굴로 긴장감 없이 일어났고 우린 그들을 포박해 중대 본부로 갔습니다.

"뭐이라? 우리가 대항군을 잡아? 그것도 3명이나? 진짜가?"

"충성! 네 그렇습니다. 여기 대항군 3명 잡았습니다."

"그래그래. 편히 쉬어라. 하하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내가 여

기 면대 중대 본부로 발령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은 마 첨이다. 방위가 대항군을 다 잡고. 이게 마 무슨 경사고!"

다음 날 중대장님은 다른 면대 중대장님들이 앉아 계신 소파에 굳이 저를 데리고 가서는 "인마가 이번 독수리 훈련에서 대항군을 때려잡았지 뭡니까. 그것도 1명 아니고 3명씩이나요. 강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다른 면대도 분발 좀 하셔야겠습니다. 하하하! 뭐해요. 최 상병, 인사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저에게 깜박 윙크를 하시기에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충성!"

"참 혈기 왕성하지요? 꼭 제 젊은 장교 시절 눈동자를 똑 닮았어요. 베리 씨뮬러~ 부리부리~ 어이 최 상병 긴장하지 말고 스로우 스로우 편하게 쉬어."

그렇게 중대장님과 대대장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사단장님 표창과 면대 회식, 금일봉, 일주일 포상휴가도 받았습니다.

아, 그 대항군은 왜 라면과 술을 마시고 자게 되었냐고요? 나중에 특공 병사 후임에게 들어보니 대항군으로 왔던 병장은 전역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말년 중의 말년이었는데 특공부대 중대장님께 개겨서 괘씸죄로 독수리 훈련에 끌려왔고 홧김에 술을 마시다 다 같이 잠들었다 하더군요. 특공 병사의 사연이야 어떻듯 제가 잡은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중대장님은 끝까지 몰랐던 대항군 사연까지 KGB 방위의 추억문 닫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사병 출신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오늘도 충성!



사랑탐구생활

나의 선장님께

윤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엔 당신이 더 보고 싶고 그리워져.

왜 늙을수록 당신이 측은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고 당신이 좋아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걸까? 요즘 들어 당신이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편지를 쓰고 싶었어. 옛날엔 우리 편지 많이 썼잖아.

우린 대학교 1학년 때 설레는 첫 미팅으로 만났지. 당신은 특수 국립대학의 심벌이었던 하얀 제복을 입고 있었어.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무역선의 선장과 기관장을 키우기 위해 국가가 온 지원을 하며 준비시키던 당신은 이 나라의 재원이었어.

그땐 기숙사 생활을 해서 토요일만 외출이 허락됐던 지라 우리가 찻집에서 첫 미팅을 했던 그날도 토요일이었고 토요일만 되면 부산 남포동 거리는 당신 학교의 제복들로 골목골목 하얀 꽃이 피어났잖아. 난 그날 솔직히 당신보다도 당신 제복에 마음을 더 빼앗겼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주중엔 편지를 주고받았고 주말엔 어김없이 남포동 거리를 누비며 싱그러운 청춘을 뽐냈던 그 시절, 항상 제복을 입고 있던 당신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행동을 해서 멋있었어.

그렇게 4년, 빛나는 우리의 청춘 시절을 함께 보내고 당신은 국가의 돈으로 공부했으니 의무적으로 배를 타야만 했어. 배를 타지 않으려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지. 바다의 사나이로 전 세계를 항해하다가 마지막엔 도선사가 되는 게 꿈이었던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 그걸 위해서 그 학교를 선택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만 나를 만나서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어 버렸지. 우리 부모님이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고 강경한 반대를 하셨고, 그 모습에 당신은 과감하게 꿈을 접고 해군에 입대해 결국 당신이 군대 중위가 됐을 때 우리 결혼했잖아. 참 고마웠어. 날 선택해줘서.

진해 단칸방에서 군인 월급 7만 원으로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지. 전역하고 회사에 입사한 당신은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바다를 품어내는 도선사를 잊고 평범하게 아이 셋 낳고 선녀와 나무꾼처럼 잘살았어.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질 않더라.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었지. 친지의 요청으로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게 됐고 세월이 가면서 항상 잘 나갈 것 같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당신 머릿속엔 우리 가족을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일념, 그거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 이것저것 다 해 봤지만 그래도 힘들었지. 그때 당신은 포기했던 꿈이 생각나,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

"당신만 괜찮으면 나, 다시 한번 꿈에 도전하고 싶어. 배를 타보고 싶어."

그땐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고 형편이 어려워서 나에겐 선택의 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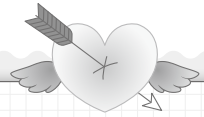


가 없었어. 당신은 말소된 항해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지금은 선장으로 큰 화물선을 운영하고 있네. 나이도 많았고 다들 걱정했지만 당신은 다행히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항상 나를 안심시켰어.

망망대해를 누비고 다니는 배 안에서 당신의 외로움도 선원들의 건강도 또 국제 화물을 항상 안전하게 관리 운항하며 싣고 내려주는 막중한 책임감. 그게 왜 힘들지 않겠어? 고맙고 미안해.

우리 가족의 선장으로서도 인생의 큰 바다에서 파도와 폭풍을 피해 다니며 참 열심히도 우릴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끌어준 당신. 그 덕에 아이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처럼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책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간다. 그지?

내년이면 선장의 촉탁 임기도 끝나니까 앞으로 십 년은 예전처럼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겠지? 나의 선장님, 수고했고 사랑해.



사랑탐구생활

풋풋하고 다정했던 그때

기쁨이네 | 부산광역시

제대로 된 신혼도 즐기지 못하고 허니문 베이비로 결혼한 그해 아기가 태어난 우리 부부. 엄마로서 모든 게 처음이었던 저는 남편이라도 제 곁에서 함께해 주며 때로는 제 응석도 받아주길 바랐어요.

겨울에 태어난 아기는 그해 여름 잔병치레도 많았거든요. 날씨도 어찌나 더웠던지 아이를 돌보느라 뜬눈으로 밤새우고, 밥도 대충 물에 말아 먹거나 못 먹거나 낮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고 밤엔 칭얼대는 아기를 업고 재우느라 몸이 정말 두 개였으면 싶었지요.

그런데도 오직 나라 생각만 하는 뼛속까지 직업군인이던 남편.

"자기야, 우리 기쁨이가 열이 나는 거 같은데 나 대신 수건에 찬물 좀 적셔서 오면 안 돼?"

"아참 한창 잘 자고 있었는데 나 내일 새벽에 비상훈련 있는 거 몰라? 자기가 그냥 움직이면 되는걸."

"난 지금 기쁨이 우는 거 달래고 있잖아?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심하냐?"

"나라 지키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원래 애들은 엄마 손에서 크는 법이야."

이쯤 되니 속에서 뭔가 욱하더라고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나만 기쁨이 돌보라는 법이라도 있어?"

"나도 훈련받고 와서 하루 쉬는 날인데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도록 놔두면 안 되냐?"

"자기는 지금 우리 기쁨이 아파서 칭얼대는 것보다 그깟 잠이 더 중요해?"

"그깟 잠? 내가 놀고 왔냐? 이틀 내내 밤낮으로 산악 훈련 마치고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렇게 다툼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옆 부대 김 대위님 와이프는 애를 셋이나 낳고도 단 한번도 힘든 티 안 내고 남편이 훈련 갔다 오면 8첩 밥상에 술상까지 봐온다더라."

"참나! 그럼 그 김 대위 와이프,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했냐?"

"왜 또 유치하게 그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난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자기 부대 박 원사님은 아침마다 아이들 등교시키고 도시락까지 준비한다더라.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어?"

"내가 박 원사님이랑 같아? 엄연히 하는 역할도 다른데."

"박 원사님도 집에선 아빠고 당신도 우리 집에선 아빤데 뭐가 달라? 뭐가 다른데?"

"아이고 참나. 나 그냥 거실에서 잘게. 됐지?"

"되긴 뭐가 돼! 내일 우리 기쁨이 소아과 예약했는데 아침에 차 좀 태워주면 안 돼? 여기 워낙 시골이라 마을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또 지하철도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데."

"나 아침부터 훈련 있다는 말 못 들었어?"

"아니 결혼 전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평생 나만 떠받들며 살겠다더니 벌써 마음이 변한 거야?"

"안 졸려? 기쁨아 이제 그만 자자. 응? 제발! 알았지?"

직업군인의 아내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도시라면 친구라도 불러 수다라도 실컷 떨었을 텐데 그땐 그럴 친구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쁨이를 업고 혼자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쁘다는 사람이 여긴 왜 왔어?"

"기쁨이는 어때? 아침부터 서두르느라 힘들었지? 밥도 안 먹고 나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연차라도 낼 걸 그랬네."

"기쁨이 괜찮은 거 봤으면 얼른 가 봐."

"아니야. 밥 먹고 들어간다고 했어."

그러더니 남편은 다짜고짜 저를 삼계탕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짠돌이 남편이 삼계탕을, 그것도 인삼과 전복을 잔뜩 넣고 끓인 특 삼계탕을 시키더군요. 왠지 고마우면서도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먹어 봐. 나 때문에 에어컨도 없는 시골 군부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기쁨이 키우느라 힘들지?"

"아니 뭐, 근데 이렇게 더운 날 무슨 삼계탕이야? 차라리 냉면을 시켜주지. 지금 나 골탕 먹이는 거야?"

"나는 그냥 당신이랑 기쁨이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암튼 뭐 맛은 있어 보이네."

그런데 먹으려니 또 난감하더라고요. 한 손으론 기쁨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엔 우유병을 들고 있었거든요. 수저를 들 손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려 했습니다.

"아차차! 내가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럼 기쁨이는 내가 안고 있을까?"

"기쁨이는 당신이 안으면 바로 우는 거 몰라?"

"허 그럼 어떡하나. 뜨거울 때 바로 먹어야 하는데."

"뭘 어떻게! 그냥 내 것도 당신이 먹어."

"진짜? 에이 그럼 그럴까?"

그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제 뚝배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가더니 그 뜨거운 걸 손으로 하나하나 찢어서 살을 발라내더군요. 그리곤 소금을 콕 찍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척하다가 "자~ 아~ 해 봐."

"아잉 뭐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그냥 챙겨 줄 때 받아들여. 나도 지금 엄청 쑥스럽거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때, 괜찮아?"

"살도 부드럽고 맛있네."

"자, 그럼 다리 한번 뜯어볼래? 내가 손에 쥐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사정없이 뜯어. 대신 내 손가락까지 물진 말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뜨거운 국물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목메니까 국물도 한 번 먹어 봐. 원래 삼계탕은 국물이 진국인 거 알지? 근데 당신 왜 울어? 너무 뜨거워서 그래? 좀 더 불어 줄까? 후후~."

"이럴 거면 평소에나 좀 잘하지."

"아이고, 울지 마요.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요새 진급 심사 때문에 내가 예민하잖아. 당신이랑 기쁨이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든 버텨서 진급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미안해."

"실은 나도 맨날 당신한테 투정 부려서 미안해."

"내가 더 미안해. 그리고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대위님 와이프 얘기 그거 다 뻥이야. 대위님은 아침도 굶고 오신대."

"진짜? 나는 아침은 차려주는데. 뭐야 그럼 내가 더 낫네?"

"아 여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우리 부대에 나만큼 결혼 잘한 사람 없다니까!"

"으앙~ 여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암튼 내가 말주변이 좀 없긴 한대. 여보, 당신이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우리 기쁨이도 소중하지만 기쁨이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나 믿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시간이 훌쩍 지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 우리에게도 이런 추억이 있었지' 마음이 설렙니다. 무뚝뚝한 남편아, 듣고 있니? 우리 풋풋하고 다정했던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순 없겠니?

주말엔 투유

'어린 왕자'가 준 교훈

홍기성 | 경기도 화성시

다영아, 아빠야!

아빠가 다영이도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할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 그러다 아빠가 인도로 오기 전에 선택한 책이 바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단다. 아빠가 다영이 나이 정도일 무렵에 지금의 다영이처럼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이 훌륭하고 위대한 명작을 마흔이 훌쩍 넘긴 지금에서야 보게 됐어. 그래서 다영이한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

아빠는 인도에 와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이 책을 읽고 있어. 아빠가 본 〈어린 왕자〉는 아이들이 읽어도 좋을 만큼 쉽고 단편적인 전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 감동할 대상은 어린이가 아닌 아빠나 엄마 같은 어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어. 친구를 사귈 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기대하고 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어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지. 왜 우리 어른은 상대방의 순수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의존해서 판단만 하려고 하는 걸까? '내 친구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내 친구는 어떤 놀이에 재미를 느낄까?' '내 친구는 어떤 개성이 있을까?' '내가 친구에게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텐데.

어린 왕자는 아빠처럼 세상사에 찌든 어른들에게 주변 친구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혜안과 지혜를 줬다고 생각해.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에 남겨두고 온 꽃을 가꾸는 것이 절대 귀찮지 않다고 했지. 아빠는 어린 왕자가 했던 말을 잊지 않고 명심하려 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어느 별에 살고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달콤할 거야. 별들마저 모두 꽃을 피울 테니까."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 꽃은 몹시 연약해. 너무 순진하고 전혀 쓸모없는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해."

이렇게 어린 왕자가 한 말을 떠올리면서 꽃을 가꾸는 일은 전혀 귀찮은 일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느낀다.

다영이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길 바라.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길 아빠도 빌어볼게. 〈어린 왕자〉를 통해 깊은 교훈을 준 생텍쥐페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아빠는 우리 다영이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

- 인도에서 아빠가

주말엔 투유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오한숙 | 경기도 평택시

우리 두 며늘아기야, 마음은 있지만 말재주가 없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말도 못 하는 이 시어머니를 챙겨줘서 고맙다.

우리 큰 며느리!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아이가 생겨 많이 힘들지? 따로 사니 챙겨주지도 못해 미안하다. 달이 갈수록 배가 당기고 임신 당뇨까지 있다는데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깝구나.

네가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편하게 다 말하라고 하고선 아무것도 못 해주니깐 너무 속상하다. 뭐라도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러 번 병원에 실려 가고 잘 먹지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네 몸과 아이를 잘 지키면서 버티고 견뎌줘서 고맙다. 이제 한 달 이십일 정도만 잘 견디고 나면 아기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날 거다. 그 생각을 하니 날짜 가는 게 참 느리게 느껴지는구나. 아이 태명을 참 잘



지은 거 같다. '이김'이라고 했다지. 태명처럼 잘 이기고 있다가 태어날 거다. 장하다. 우리 큰 며늘아기.

우리 작은 며느리, 벌써 결혼한 지 12년. 그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시부모에게 잘해주고 뭐든지 살뜰히 챙겨줘서 참 고맙다. 이번에도 병원에 몇 번씩 데리고 다녀주며 걱정해주고 딸처럼 살갑게 해줘서 고맙고 행복했다. 주영아, 고맙다. 작년에 11년 만에 아기를 가졌다가 유산이 돼서 내 마음이 많이 쓰이는구나.

우리 두 며느리 다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지.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잘 챙겨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딸과 친정엄마처럼 할 수는 없겠지. 나도 엄마가 그리울 때는 마음이 저린다. 돈 많은 부자보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제일 부럽고 부자로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보다 너희 마음이 쓸쓸할 걸 잘 안다. 우리 두 며느리를 위해 빈다.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살길 바란다.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무대가 돌아왔다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9월 들어 큰 공연을 두 번 했다. 두 공연 다 객석이 커서 무대 앞에 서면 까마득할 정도였다. 공연 중에 사람들이 손에 든 불빛은 마치 반딧불이가 만든 미리내 같다. 불빛이 일렁이면 내 마음도 춤을 춘다.

태풍 '힌남노'가 오기 전, 장충체육관에서 성시경과 함께 8명의 가수가 무대에 섰다. 워낙 베테랑들이었지만 서로의 설렘을 읽을 수 있었다.

이틀간의 공연에서 제일 좋았던 건 지하 식당의 식사였다. 파랑조끼 입은 100여 명의 스태프도 함께 앉아 따뜻한 밥, 국, 반찬, 후식(과일)까지 먹었다. 찬 도시락보다 얼마나 고마운지! 가수들은 죄다 입을 모아 이런 분위기가 그리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며칠 전 파주 평화누리 야외공원에서 포크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야말로 만 3년 만에 연주팀과 얼굴을 마주 보며 연습을 했다.

늘 공연 때마다 묵묵히 뒤에서 노래를 빛나게 해주는 친구들. 3년 만이라니 기가 막힌다. 6명 중 3명은 머리가 하얗게 셌다. 얼굴은 동안이니 그나마 다행이다.

코로나 세월 동안 이혼한 친구도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일제 치하의 형사들이 쓰던 따개비 모자를 안 써서 뭐가 달라지셨나? 했더니 모발 이식 덕에 인물이 확 달라 보였다. 두 명은 지금 임플란트 시술하고 마무리 시간을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는 94년 공연부터 지금까지 많은 날을 함께해왔는데 그사이 또 한 친구는 연주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었단다. 대학에서 강의하던 친구들은 비대면 강의를 하며 그새 머리가 하얘졌으니 가장의 고단함을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여하튼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재미나게 연습했고, 공연 무대는 소리 확성의 어설픔으로 불편했지만 리허설 때보다 공연 실황이 좋아서 다행이었다.

3년 만의 만남이라 우린 휴대폰으로 단체 사진도 찍었다. 멋지고 맛난 김밥을 사 와서 즐겁게 밥을 먹었다.

하지만 오랜만의 공연은 내게 무대 공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걱정스러웠다. 마음이 고요해야 하는데 심장이 나대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다 노래가 흔들리기도 한다. 어떤 노랫말 중에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게~"가 있는데 나에겐 참 어려운 얘기다.

파주 야외 공연 후 집에 와서 클렌징크림으로 화장을 지우고 두세 번의 세수로 깨끗이 마무리하고 머리를 감고 제일 낡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냉장고로 향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공연 마치면 허전하다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지냈다. 뭐가 허전하단 얘긴지? 기운이 다 빠져서 집에 오는 것도 겨우 겨우인데…. 쫑파티로 새벽까지 먹고 마시는 걸 전혀 이해 못 한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야식을 먹다니 정말 별일이다.

뭔가 내 맘에 쏙 드는 음식이 없어서 나는 밥 한 그릇에 참기름을 두르고 생된장으로 비볐다. 그리고 오이소박이를 놓고 맛나게 먹고 나니 헛헛함이 가셨다.

야식 후 소가 되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다. 온갖 애를 쓰고 공연을 하다 보니 모든 기운이 위로 올라가 상기되어서 이미 잠은 달아났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무대에서의 나도 달라졌다. 공연 안 하면서 그냥 늙어버린 기분이다.



잘 헤어질 결심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최근 매니저 백 이사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다. 백 이사의 20대 때부터 현재 40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을 함께해 온 반려견 뽀삐와의 이별. 4, 5개월 전부터 뽀삐의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걱정했던 백 이사.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뽀삐의 안부를 들어왔기에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백 이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파했던 뽀삐의 모습을 보아 왔기에 고통 없는 세상으로의 여행을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귀엽고 건강했던 예전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뽀삐를 추억하는 백 이사의 SNS 글을 보니, 담담한 어투의 글 사이사이에서 많은 것이 느껴졌다. 당분간 그리고 앞으로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그리움. 하지만 그런 그리움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리라.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게 마련인 것이 세상사.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물건이든 수없이 많은 존재와 마주치고, 정을 나누다 그것이 깊어지고 혹은 떨어지고 그리고 헤어진다.

5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 동식물, 사물들과 마주쳤다. 여전히 만나고 있는 대상도 많고 이별한 경우도 꽤 있다.

헤어진 지 꽤 되었는데도 자주 생각나는 존재들.

나이가 지긋하신 데도 멋쟁이인 어른들을 만나거나, 노래를 가수만큼 잘하는 일반인들을 보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대전에 내려갈 때마다 방송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과 주변이 깔끔해야 한다고 밤늦게까지 내 옷과 차를 정돈해 놓으셔서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셨던 분. 지금도 하늘나라 어딘가에서 청바지에 흰 구두 신고 '마이웨이' 부르시며 박수받고 계시겠지.

동네마다 한두 군데는 있는 수족관을 지날 때마다 생각나는 퍼미와 즐미.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이것저것 벽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마다 작은 어항 안에서 뻐끔뻐끔 입을 벌리며 힘내라고 얘기해 주던 귀여운 꼬마 거북이 녀석들. 퍼미는 또 다른 세상에서, 즐미는 다른 주인 앞에서 여전히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열심히 입놀림을 하고 있겠지.

경차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나의 첫 차 티코. 가난한 대학생 시

절, 과외 아르바이트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녀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활동 범위가 넓어져 내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부모님 용돈까지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었던 기특한 친구. 핸들을 돌리지 않고 몸만 살짝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방향 전환이 되었던 금속인 듯 금속 아닌 금속 같은 유연한 녀석. 지금은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새로운 물건의 일부가 되어 활약하고 있겠지.

얼마 전 박찬욱 감독이 새 영화를 내놓았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이다. 제목을 패러디한 광고가 나올 정도. '헤어 가질 결심'. 이덕화 형이 모델인 가발 회사 광고다. 이번 글의 제목은 나도 그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다.

언젠가는 하게 될 수많은 상대와의 이별을, 그럭저럭 살다가 때되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오래도록 좋은 친구로, 훌륭한 동료로, 존경했던 선배로, 고마운 지인으로, 따뜻한 주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히 여기고, 말 못하는 동식물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여러 물건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잘 헤어질 결심을 한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